

기획특집

공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Green Air Force, Green Growth

창군 60주년 특집 2

창군 60주년 기념행사 미리보기

부대동정

선진 정예 부사관의 힘찬 날갯짓!



콩나물의 물음표



콩에 햇빛을 주지 않아야 콩에서 콩나물이 나온다

콩에서 콩나물로 가는 그 긴 기간 동안
 밑 빠진 어둠으로 된 집, 짙을 낀 시루 안에서
 비를 맞으며 콩이 생각했을 어둠에 대하여
 보자기 아래 감추어진 콩의 얼굴에 대하여
 수분을 함유한 고온다습의 이마가 일그러지면서
 하나의 금빛으로 터져나오는 노오란 쇠갈고리 모양의
 콩나물 새싹,
 그 아름다운 금빛 첫 싹이 왜 물음표를 닮았는지에 대하여
 금빛 물음표 같은 손목들을 위로위로 향하여
 검은 보자기 천장을 조금 들어올려보는
 그 천지개벽

콩에서 콩나물로 가는 그 어두운 기간 동안
 꼭 감은 내 눈 속에 꼭 감은 내 눈 속에
 쑥쑥 한 시루의 음악의 보름달이 벽차게 빨리

검은 보자기 아래 -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사이였다

김승희, 「냄비는 동동」, 2006년 창비



■ 시인 : 김승희

1952년 광주 출생. 197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로,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로 등단. 시집 「태양 미사」, 「달걀 속의 생」, 「미완성을 위한 연가」, 「빛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 「냄비는 동동」 등이 있으며, 소월시문학상, 고정희상, 올해의 예술상 등을 수상함.

■ 시 해설

그랬군요, 어둠고 긴 시간을 지나서야 콩이 콩나물로 몸을 바꾼 것이군요, 햇빛도 없는 어둠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어둠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군요, 뜨겁고 습기 많은 이마가 금빛으로 갈라질 때까지 끝없이 자기 생의 어둠에 대해 질문을 던졌던 것이군요, 그 물음표에서 천지개벽이 시작된 것이군요, 그렇게 한 시루의 음악이 된 것이군요, 음악의 보름달이 된 것이군요. - 시인 도종환



표지설명 : 지난 2월 25일, 제20비에 도입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표지사진 : 사진작가 김윤해
뒤표지디자인 : 중위 이영택(공본 문화홍보과)

- 04** [창군 60주년 특집 2] _ 3월의 공군역사
 - _ 역대 주력 비행기 기종 소개 2
 - _ 창군 60주년 기념행사 미리보기
 - _ 다시 읽는 「공군」
- 12** 부대동정 _ 선진 정예 부사관의 힘찬 날갯짓!
- 14** 기획특집 _ 공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Green Air Force, Green Growth
- 20** At a Glance _ 봄의 길목에서, 그대를 그리다
- 24** World-Wide Vision _ OLD School, (예)주임원사의 교관생활 회고기
- 27** 책마을 _ THE ROAD
- 28** 참모총장 스케치
- 30** 공군은 지금
- 34** e-Sports, <ACE> _ 차재욱-자이언트 킬러
- 36** HOT CLIP! _ Communication Wanted! 생각대로 공군을 바꾼다
- 38** Bird-Alert! _ 오골계가 물 위에 살고 있나요?
- 41** 전재인의 일상茶반사 _ 눈 속에 피는 매화같은 다인
- 44** 이등병이 쓴다! _ 기상대 병사들의 웃음나누기
-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Vendetta가 Avenge에게 "누구나, 넌?"
- 48** 생각하는 그림 _ 결코 믿음을 잃지 마세요
- 50** 정홍래의 음악산책 _ 성악계의 새로운 흐름
- 52** 장동하의 décalcomanie _ 내 마음속의 메트로놈
- 54** PREVIEW _ 3월의 문화행사
- 56** Letters to the Editor _ 1월호를 읽고서

공군 March 2009 No.369

발행일자 | 2009년 3월 9일(통권 제369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처장 준장(전) 김규진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소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3월의 역사 > 기종 소개 > 기념 행사 > 메모기사

3월의 공군역사

자료제공: 공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의 편집실

- 1988년 3월 1일 - 육군 방공포 인수 및 제88방공포전대 창설
- 1973년 3월 15일 - 주월(駐越) 한국공군지원단 임무완료 후 귀국
- 1972년 3월 27일 - T-41 항공기 인수
- 1992년 3월 31일 - C-54D 수송기 퇴역

육군 방공포 인수 및 제88방공포전대 창설(1988년 3월 1일)

1987년 9월, 군무회의 석상에서 국방부 장관이 공군기지에 배치된 육군 대공포 전환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동년 12월 30일, 육군 대공포 소속전환이 결정되었고 우리 공군은 1988년 3월 1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육군 대공포를 인수하여, 동년 11월 1일 작전사령부 직할로 제88방공포전대를 창설하였다.

공군작전계획 제123호(화성계획)에 의거 3개 대대와 1개 정비대로 편성한 제88방공포전대는 기지 대공방어 전력 지휘관리, 전투준비태세 유지, 작전운용요원 교육 훈련 및 평가, 방공전술/전기개발 및 교리발전, 화포 정비능력 개발 등의 부대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전대본부는 수원기지에 두었다. 초대 전대장에 진정길 대령이 보임한 88방공포전대는 공군으로 전군(轉軍)하는 육군 방공포병 전력과 통합하여 공군방공포병사령부로 개편이 결정되면서 1991년 6월 28일 수원기지에서 해편식을 거행하였다.



수원기지에서 한주석 작전사령관 임석하에 제88방공포전대 창설식을 거행함.

주월(駐越) 한국공군지원단 임무완료 후 귀국(1973년 3월 15일)

우리 공군은 1965년 1월 안화선 소령을 최초로 파월한 이래, 1966년 후반에는 전술항공지원반과 공수지원반 요원을 파월하여 주월 한국군의 전투지원과 수송지원을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월남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이에 따른 공군의 지원범위가 확장되면서 일원화된 지휘권 아래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967년 7월 1일부로 공군지원단을 창설하였다.

예하에 전술공중지원대, 비행대, 수송지원대 등 솔밭처럼 탄탄한 편제를 갖춘 공군지원단은 1973년 3월 철수시까지 전방 공중통제지원(1,960회), 인원(34만여명) 및 각종 물자수송(5,480톤), 주월 한국군에 대한 일일기상지원(19,050회) 등의 임무



공군지원단 개설회환영식에 참가한 파월 장병들의 모습

를 제반환경의 불비한 악조건하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완수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이역만리 월남땅에 드높였다.



34년간 정예 보라매 양성에 산파역할을 한 T-41 항공기

T-41 항공기 인수(1972년 3월 27일)

T-41 항공기는 공군이 학생조종사의 초등비행 훈련을 위해 미군원(軍援)으로 인수한 세스나社의 4인승 단발 프로펠러 항공기이다. 공군은 최초 18대를 인수하여 1973년부터 비행훈련에 사용하였으며 총 27대를 운영하였다.

T-41 항공기는 기종노후로 인하여 T-103 항공기에게 임무를 이양하고 2006년 11월 퇴역하기까지 34년간 133개 차반, 6,400여명의 정예 보라매를 배출하는 산파역할을 담당했으며, 16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공군역사에 아로 새겼다.



우리 공군의 활동영역을 동남아까지 확장한 C-54D 수송기의 퇴역식 장면

C-54D 수송기 퇴역(1992년 3월 31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맥아더 장군이 전용기로 사용한 C-54D 수송기(일명 Sky Master)는 우리 공군이 한·월간 정기공수와 전상환자 후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66년에 최초 도입한 이래, 한·월남 정기항로에 총 509회 취항하여 19,959명의 인원과 11,423명의 전상환자를 공수하는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월남전 종전 이후에는 국내에서 대간첩작전, 심야초계비행, 귀빈공수 및 정기공수 임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전용기로도 사용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전 공군인의 성원을 담아 성화봉송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도 한 C-54D 수송기는 전력증강계획에 따른 노후 항공기 및 장기취역항공기의 대체 사업으로 1992년 3월 31일 퇴역하여 공군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하였다. ㉠



공군의 역대 비행 기종을 알아본다 2

1. T-6 건국기 2. H-19D 헬리콥터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의 편집실



T-6 건국기 도입 및 명명식(1950년 5월 14일)

텍산(Texan)이라는 별명을 가진 T-6 항공기는 전후방 조종석을 갖춘 2인승 중급 훈련기다. 1948년 항공부대의 창설로 공군 태동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은 대한민국 공군으로 받아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미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L형 비행기 20여 대를 제외하곤 단 1대의 항공기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 장병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투기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번번히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사오자고 결심한 항공인들은 애국기 헌납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당시 신생 대한민국은 피폐한 국체를 온전히 추스르기도 힘든 처지였고 국민들 역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나가는 형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애국기 헌납운동은 전 국민적인 호응을 얻게 되어 예상모금액 2억환을 훨씬 뛰어넘는 3억 5천만환의 모금실적을 거두었다. 이제 우리도 전투기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항공기의 대한(對韓)판매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를 거부하자 우리 공군은 캐나다製 T-6 Texan 항공기 10대를 들여왔고 1950년 5월 14일, 여의도 기지에서 국민의 열렬한 환영 속에 다음과 같이 건국기 명명식을 거행하였다.

- | | |
|--------------|---------------|
| 건국 1호(교 통 호) | 건국 2호(전남학도호) |
| 건국 3호(전북학도호) | 건국 4호(전 매 호) |
| 건국 5호(충 남 호) | 건국 6호(체 신 호) |
| 건국 7호(국 민 호) | 건국 8호(농 민 호) |
| 건국 9호(남 전 호) | 건국 10호(경 북 호) |

국가의 건설과 애국심을 상징하기 위하여 '건국기'로 명명한 이 항공기는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L-4, 5 항공기와는 달리 우리 선배 장병들과 국민들의 정성 어린 염원이 담겨져 있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국공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6·25 전쟁동안 T-6 건국기는 적진출격 28회, 정찰비행 196,796회, 전단살포 4,644,000매, 연락비행 1,078회의 전과를 거두었으며, 정예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그 역할에 충실해 588명의 보라매들을 키워내기도 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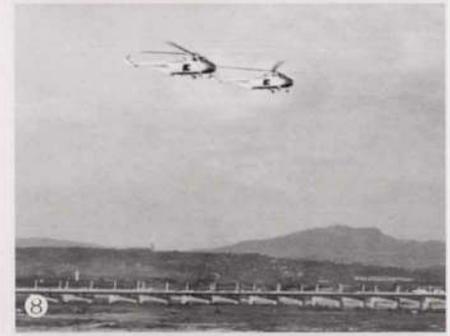
1962년 12월 1일 여의도기지에서 성대하게 거행한 T-6 건국기 퇴역식은 장성환 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참모총장들이 참석하여 격동의 세월을 인고의 비행으로 버텨온 건국기의 프로펠러에 꽃다발을 걸어주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노병에 대한 마지막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이날, 장성환 참모총장은 항공기 퇴역식에서는 이례적으로 5쪽 분량의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T-6 건국기가 우리 공군에서 차지해온 상징적 위치와 역사적 가치는 대단히 값진 것이었다.

H-19D 헬기 도입(1958년 7월 16일)

H-19D 항공기는 1949년 11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S-55 헬기를 1951년에 군용으로 개조·명명한 회전날개가 세 개인 헬리콥터다. 1958년 초반까지 대한민국 공군은 탐색구조 및 헬기를 통한 각종 보급물자 수송을 오산기지의 미 공군 구조비행대대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역량이 보유기종의 다양화와 관제기구의 인수 등으로 나날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독자적인 구조비행대대의 창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8년 7월 16일 2대의 H-19D 헬기를 군원으로 인수하여 제33구조비행대대를 창설하였다.

시콜스키(Sikorsky)社가 제작하여 치카소(Chickasaw, 아메리카 원주민의 한 종족)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 H-19D 헬기는 10명의 승객과 2,300LBS(1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우리 공군은 총 9대를 도입하여 탐색구조 및 귀빈용으로 운용하였다. H-19D 헬기는 UH-1B/N 헬기를 도입함에 따라 1977년 7월 14일 퇴역하였다.



- ❶ 항공주변을 비행하고 있는 T-6 건국기 편대
- ❷ 역대 참모총장들이 건국기 프로펠러에 꽃다발을 걸어주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 ❸ 1950년 12월 제주기지가 훈련기지로 결정됨에 따라 1950년 12월 19일 대전에서 제주기지로 이동한 공군비행단 조종사들이 제주기지에서 T-6 비행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 ❹ 건국기 이름 명명식
- ❺ 사천기지에서 조종사 훈련을 위해 활주로에 대기 중인 T-6 항공기
- ❻ 동체 전면의 태극표지가 이채로운 H-19D 헬기
- ❼ 군수사령부 정비창에서 H-19D 헬기 창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H-19D 헬기는 1958년 7월 16일 2대 도입을 시작으로 총 9대를 군원으로 인수 운영하였다.
- ❽ 비행훈련을 위해 이륙한 H-19D 헬기 모습
- ❹ H-19D 헬기는 1977년 7월 14일 퇴역하였다.

1) 자료출처 : 건국기 퇴역에 관한 담화문(1962년 5월 1일)

창군 60주년 기념행사

미리보기

자료제공: 공군 창군 60주년 행사기획팀 원도경리 편집실

창군 60주년을 맞는 올해, 공군의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나 공군이 선보일 대국민 기념문화 행사는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Must-Know Information일 것이다. 올해 4월 Space Challenge 2009 지역예선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20가지의 다채로운 행사가 공군화합, 공군 위용과시/국민공감, 그리고 공군비전/학술을 테마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군화합행사

1. 창군 60주년 기념식

올해 10월 23일, 공군 창군 60주년을 경축하고 현재의 공군력을 과시하며 국민의 힘으로 열어나가는 선진 정예화된 강한 공군의 모습을 성남 비행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군악/의장대의 시범을 시작으로 Rescue(구조사)와 CCT (Combat Control Team, 공정통제사)의 고공강하 시범, 기동 시범(KT-1, T-50, KF-16, F-15K),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강한 공군의 위용을 뽐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군



2007 서울에어쇼 당시 자료사진

60년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 항공기 및 무장 등이 전시되고, 페이스 페인팅과 블랙이글스 조종사, e-Sports팀과 연예병사의 팬 사인회가 열린다.



2007 서울에어쇼 당시 블랙이글스팀 자료사진

2. 한국전 공군참전용사 초청 행사

10월 20일~25일까지 한국전에 참전했던 6개국(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스, 태국, 남아공) 공군참전용사를 초청하여 참전용사의 명예심을 고양하고 혈맹의식을 강화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약 100여 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주요 전적지를 순례하며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3. 현역·예비역 한마음 행사

현역과 예비역 간의 유대강화 및 공군정책과 미래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6월 중 병과별 예비역 초청행사(26개 특기분야)와 지역별 예비역 초청행사(5개 권역)가 실시된다. 한마음 행사에서는 공군 주요 정책 및 60주년 발전상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역과 예비역의 의견교환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4. 공군사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공군 창군 60주년과 더불어 미래 정예 공군인의 요람인 공군사관학교 역시 60번째 생일을 맞았다. 6월 10일 실시될 개교기념 행사에는 전 동문 및 가족, 장병, 생도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성무인의 자긍심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밖에 박물관 특별전시회 개막식도 열린다.

5. 공군 발원지 기념비 제막식

9월 22일, 여의도 및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역대참모총장, 창군요원, 6·25 출격조종사를 초청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발원지에서 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실시한다. 보라매공원-대방역-영등포 로터리-서울교-양카라공원-여의도공원까지 이르는 총 6.7km의 시가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공군 위용과시/국민공감행사

1. Space Challenge 2009/기지공개행사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 과학축제로서 항공우주사상 고양 및

항공 과학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Space Challenge 2009 행사가 4월 4일 전국 비행단에서 실시하는 예선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참가 종목은 자유비행(고무동력/글라이더), 동력비행(유·무선 조종),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물로켓 총 3부분이며 본선은 5월 17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다.

창군 60주년 기념과 함께 펼쳐지는 올해 행사는 기지공개 행사와 더불어 낙도어린이(장애우 및 소년·소녀가장 포함)를 예선대회 당일 해당기지로 초청한다. 기동 시범비행과 단체공연 및 항공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지며 올 상반기 최대 축제이다.



2008 Space Challenge 자료사진

2. 창공클럽 창작 활동 지원

한국전 시 공군에 종군했던 문인들의 모임인 '창공 구락부'의 성격을 계승하여 도종환 시인을 회장으로 총 53명의 시인, 소설가, 수필가로 구성된 창공클럽이 창군 60주년을 맞아 공군의 역사조명과 전투조종사의 활약상을 작품에 녹여낸다.

이들은 연중 창작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지며 하늘사랑 백일장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문예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3. 항공우주캠프

공군만의 특성화된 청소년 캠프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항공우주력 건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항공우주캠프가 7월 27일~3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공군사관학교 주변일대에서 실시된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남녀 90여 명을 대상으로 부대전학, 생활훈련 등 생도생활 체험, 항공우주 관련 특강, 항공기 탑승체험 등을 경험한다.



2008 항공우주캠프 자료사진

공군비전/학술행사

1.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6월 24일, 연세대에서 주최하는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공군에서 후원함으로써 범국민적 공군력 발전방향 공감대 형성 및 항공우주사상 고취를 통한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력을 건설하고자 한다. 국내·외 10여 명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60년을 향한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분과-과거 60년,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쟁사적 관점에서 전략개념의 변화 고찰>, <제2분과-미래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군사전략>, <제3분과-새로운 60년 전망: 한국의 안보환경과 공군의 발전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2.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Seoul ADEX 2009 행사를 기념하고 공군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항공우주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이 10월 19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3. 공군참모총장회의 2009

10월 19일, 각 국 공군참모총장 간 유대강화 및 안보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한국 공군력의 위상 제고 및 군사외교활동 강화를 위해 서울에서 공군참모총장회의 2009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Seoul ADEX 2009 행사와 함께 추진되며 공군력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제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4. T-50 비행훈련체계 회의

한국 공군의 T-50 Golden Eagle Advanced Training Program을 주제로 하는 T-50 비행훈련체계 회의가 제1전투비행단에서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우리 공군의 기본/고등 훈련기 생산 및 훈련체계를 홍보하고 IMFACC(국제군비행훈련센터)에 관련 국가의 관심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0년 동안 쌓아왔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군의 저력을 온몸으로 느껴보길 권하며, 공군이 제공하는 다양각색의 창군 60주년 행사 일정을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기록해 놓는 센스를 발휘해보자! ①

4. 열린음악회 및 군악연주회

9월 22일, 여의도 야외무대에서 창군 6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인기가수들과 공군장병들의 공연은 물론 창군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군가를 재조명하고 공군 발상지 기념비 제막식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더불어 60주년 기념 정기연주가 11월 중순 서울 KBS홀에서, 60주년 기념 순회연주가 비행단 및 인근도시, 30단 사이트, 방공포대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5. 참모총장배 항공 전투 시뮬레이션 대회

올해 8회째를 맞는 항공 전투 시뮬레이션 대회가 10월 18일 용산 e-Sports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Cyber Pilot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일반 레이싱, F-16 공대지, F-15 2:2 공대공 부분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열리게 된다.

6. 기타행사

공군 소재 Air Power UCC 공모전이 연중행사로 Space Challenge 2009와 함께 시작한다. 또한 Seoul ADEX 2009(Aerospace Defense Exhibition 2009) 연관행사로 '국민 조종사 선발 행사', '청소년 하늘사랑 백일장' 과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세미나가 Seoul ADEX 2009 행사 기간 중 개최된다.

다시 읽는 「공군」

- 4월호부터 게재 예정 -



☞ 소령 라동섭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지나간 이야기를 흔히 “역사(歷史, History)”라고 부른다. 하지만 “역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아니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의 이야기(His Story)가 되었건 그녀의 이야기(Her Story)가 되었건 간에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서 과거 일정한 시점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기록한 내용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 사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기(역사적 사실을 사회적 평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인식적 거리가 지난 시점)가 되었을 때 기록한 내용을 비교하는 것뿐이다.

월간 「공군」은 지난 1월호부터 창군6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으로 <이달의 공군의 역사>, <공군의 역대 기종을 돌아본다>는 코너들을 연재하고 있다. 부대창설, 해외파병 등 공식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기록이나 귀순기 유도, 항공기 도입 등 각종 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소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역사의 모래

사장”을 되짚어 걸어가면서 작은 핀셋으로 모래 몇 알을 집어 들어 작은 바구니에 담은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해외파병이라는 사실 하나를 놓고 보아도 어떻게 파병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철수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파병을 다녀온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기록들을 찾아 공군인이 생각하는 역사를 다루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950~1960년대에 월간 「공군」의 전신인 「공군 위클리」, 「미사일」, 「코메트」 등에 게재되었던 있는 기사를 통해 사실의 이면에 남아 있던 공군인의 생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 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정의했고 그것은 기록한 사람이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인 인식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과거 공군인이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본다면 마치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라. 다시 읽는 「공군」!![☛]



선진 정예 부사관의 힘찬 날갯짓!

-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갈 기술부사관 165명 졸업 및 임관 -

글·사진 교육사 정훈실

『제 38기 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공고) 졸업 및 임관식』이 2월 24일, 군 관계자와 내빈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는 165여 명의 신입하사들은 지난 3년 동안 일반 전문계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기술부사관으로서 필요한 기술교육,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실시된 8주간의 강도 높은 기본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영예롭게 졸업 및 임관함으로써 장차 공군의 핵심 요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들은 항공 관제과, 정보 통신과, 항공 기계과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으며, 앞으로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항공고는 첨단 정보화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의 자격취득을 장려하여 항공기술 분야 명문고교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날 교육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예롭게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졸업생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한편, “기본에 충실한 모범적인 군인으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군사 전문기술요원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38기 임관식에는 졸업생 중 1명이 공군사관학교에 최종 합격, 현재 가입고 훈련 중이며, 18명이 위탁교육으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된 하사,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항공고를 졸업한 하사, 고교 3년 동안 10개의 자격증을 획득한 하사 등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인물 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 허영한 하사

임관식을 맞이한 허영한(許永桓, 항공관제레이더정비) 하사는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다.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2월 14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올해 8월 25일(화)부터 15일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되는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공업전자기기 직종에 한국 대표로 최종 선발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지방기능경기대회에 3위 이내에 입상하면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을 얻게 되고, 2년 동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선수 6명이 3차례 최종평가전을 거쳐 합산점수가 최고인 선수가 한국 대표로 선발된다.

경쟁자는 2007년 1위를 기록했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국가대표선발을 위해 1년간 총력적으로 지도를 받아 온 선수인데, 허 하사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것은 공군의 높은



기술력과 항공고 선생님들의 우수한 지도 및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허 하사가 출전하는 공업전자기기 직종은 전자분야의 총화로서, 관련된 모든 기술을 완벽히 소화해야만 해결해 낼 수 있는 분야로 전자회로의 설계/측정/고장수리부터 전자회로를 동작시킨 후 완벽한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주어진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며, 산업 현장이나 공군의 모든 전자/통신 분야에 적용되는 전자직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허 하사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은 공군과 학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 최선을 다해 1970년 이후로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공업전자기기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 및 공군의 기술력을 세계에 뽐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화제의 인물 ②〉

우리는 항공과학고 父子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항공고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신입하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항공과학고 38기로 졸업 후 임관하는 김주승(金主勝, 항공기체정비) 하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 하사의 아버지인 김진용 씨는 항공과학고 8기 출신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다 1986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이다. 김 하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공군관사에서 생활하며 공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헌신하며 조국 수호에 앞장서는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길을 꿈꾸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항공고에 입학하고자 결심한 김 하사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기 위해

97kg이었던 몸무게를 80kg까지 줄였고,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예 부사관이 되기 위해 3년간의 학교생활을 성실히 보냈으며, 마침내 8주간의 힘든 기본군사훈련까지 이겨내며 임관하게 되었다.

훈련과정 중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순간마다 30여년 전 똑같은 훈련을 받았던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김 하사는 “아버지에게 느꼈던 당당하고 멋진 공군 부사관이 되기 위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제의 인물 ③〉

항공정비의 Specialist!

항공기체정비 기능사, 항공장비정비 기능사,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인터넷 관리자,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정보기술자격),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 3급, 태권도 1단 등 이상은 항공고를 졸업하고 신입 부사관으로 임관한 허원진(許元眞, 항공기체정비) 하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다. 평소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항공기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취득하기 시작한 자격증이 어느새 10개에 이르게 되었다.

허 하사는 입학한 뒤 주위의 친구들을 설득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를 구성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에 앞장섰다. 특히 항공고는 졸업에 앞서 정보화 자격증과 전공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허 하사를 지켜보던 선생님들이 틈틈이 조언을 해주고, 저녁에 특별강의를 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항공정비 분야에서 손꼽히는 Specialist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허 하사는 “임관 후에도 꾸준히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일 잘하는 멋진 부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Green Air Force, Green Growth

공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 소령(전) 홍인섭 | 군참부 군수기획과 사관 김윤해 | 사진작가 일러스트 조주영

수많은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공군은 현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에너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며, Green Lifestyle을 조성해 나가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천과제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구현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요약 -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지구가 멈추는 날'을 본 느낌을 이야기해도 지울 수가 없다. 오염되어 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외계인이 찾아와 인류문명을 멸망시킨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이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역시 실제로도 심각한 시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지구 환경의 변화

2009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혁신이 가져다준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자동차, 열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과 화석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 생산 및 난방시스템, 석유화학제품의 개발 등은 예전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일들을 현재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200년이 채 안된 이 시점에서 그 문제

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커다란 위협으로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미 극지방의 오존층 구멍의 반경이 해마다 넓어져 언제 우리의 머리 위까지 다다르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빙하의 해빙속도는 지난 수세기동안보다 수십 배 빨리 진행되어, 해안 저지대 국가 및 도시들은 벌써



영화 '지구가 멈추는 날'의 한 장면



전기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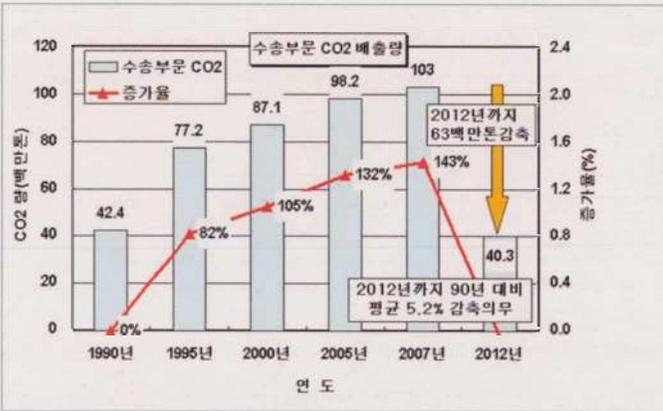
친환경
천연가스버스

친환경
바이오디젤

절전용
자동센서 설치

물속에 잠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초원지대를 사막으로 만들기도 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지구 전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간 온실가스 발생량을 규제하는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하여 2005년부터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CO₂ 배출량 세계 9위의 우리나라는 당시 개도국이라는 논리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지만,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협약에 서명하지 않

았던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각국은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향후 몇 년 후의 세계질서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 정치,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이미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미래 녹색산업분야 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이 아닌 범지구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경쟁을 시작한 것이다.



즉, 전 세계적 녹색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여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환경에 적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공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공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12대 중점,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새롭게 발굴하였다.

공군도 에너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사용을 확대하고, 녹색 생활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속에서 녹색성장을 실천하며, 공군인의 의식개혁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공군인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중에 있으며,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과제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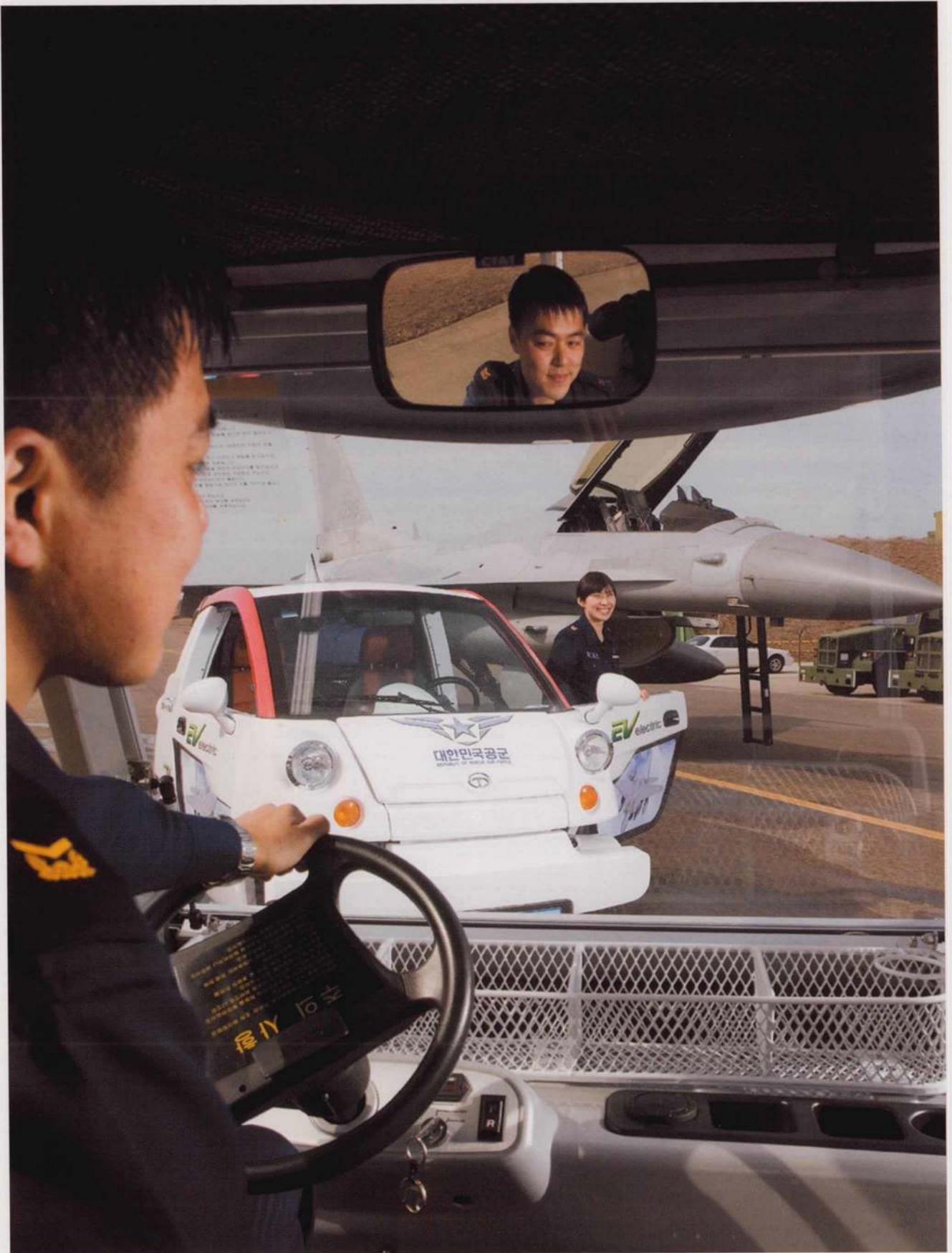
현재 우리 공군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도시의 인접지역에 활주로를 보유한 비행기지를 중심으로 넓은 면

적의 부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많은 산간 방공포/관제부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및 시설관리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각종 장비들의 연료도 많이 소요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제하고 배출량을 줄이며 더 나아가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도적인 실천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진 녹색공군 이미지 제고와 함께 타 기관 및 민간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분야별 세부 실천 활동

이런 측면에서 공군이 발굴한 과제는 장비분야에서 전기자동차의 도입을 들 수가 있다.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는 기지 내 운행환경(제한속도 40km/h)에 적합할 뿐 아니라, 운영비도 휘발유차량 대비 1/20 수준이다.

단지 도로 교통법상 차량이 아니므로 일반도로에서 다닐 수는 없지만, 정비업무 및 순찰 등 부대활동에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 제작사와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15톤비, 20전비에서 시범운영 후 예산을 반영하여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대도시 주변의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친환경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공해는 20% 이상, 연료비는 대





당 연간 약 450만원 가량 절감된다. 이외에도 업무용 승용차를 2012년까지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50% 이상 교체하고 올해부터 구매하는 경유 차량은 모두 유로-4 기준¹⁾에 적합한 차량으로 도입된다.

유류분야에서는 친환경 바이오디젤 조달을 추진한다. 곡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은 BD20(바이오디젤 20% 함유) 기준으로 온실가스가 20% 가량 적게 배출된다. 시범기지를 선정하여 소요물량을 산정하였고, 2/4분기부터 조달예정이다. 이렇게 공군에서 바이오디젤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도 보호하고 국내 바이오디젤 산업발전에도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설분야 추진사항으로 공군 기지특성에 부합한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연구기관의 용역을 계약 중에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 올 3/4분기 이후 공군세부 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해 전 부대 3,400여 개소의 화장실에 절전용 자동센서 설치와 16,000여 개의 고효율 LED램프 교체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계설비 분야의 ESCO²⁾사업으로 연간 경유 15만 리터를 절약하게 된다. 이외에도 건물별 사용목표 달성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단위건물 에너지인가제를 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것이다.

환경 분야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부대 내 소규모 소각로를 폐쇄하고 지자체의 대형 소각로에 위탁처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한다. 또한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

해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계획하여 올해 공군사관학교 등 2개 부대와 향후 각 비행단 등 33개 부대의 시설개선을 계획하였다. 또한 기지 내 토양 오염도를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한 2개 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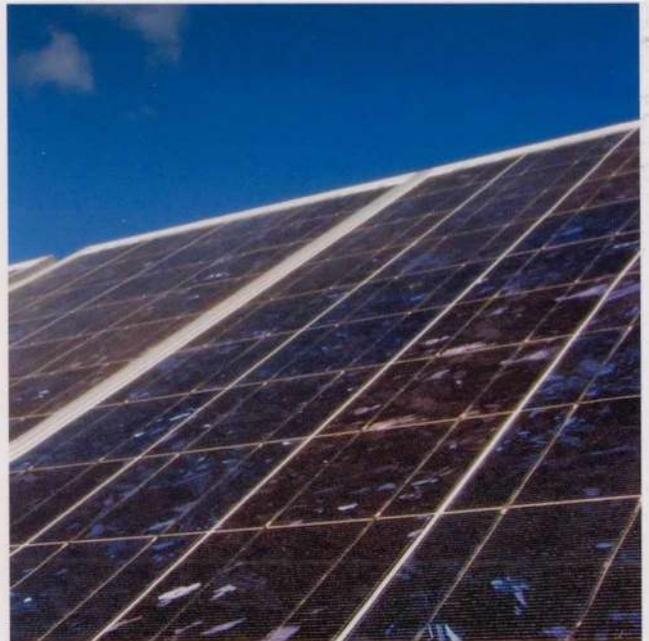
유일하게 공군만이 운용하고 있는 기상 분야에 있어서는 에어로졸(미세먼지, 질소화합물, 항공기 연소물 등), 황사 등 무기체계에 직접적인 피해 가능요소를 측정하고, 환경관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2013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사업소요제기 및 예산반영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울릉도 특별 고공관측 및 강우특성연구를 수행하고 올 10월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기) 기후센터 요원 및 관련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는 제2회 기후변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양성과정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교육과목으로 편성하여 저탄소 녹색공군의 일원으로 만들고, 지속적인 녹색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전 공군인의 녹색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행사를 연중 계획 중이며 2월말에 이미 환경부 장관이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초빙강연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공군은 분야별 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 공군인을 대상으로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

1) 디젤 자동차가 내는 배기가스의 유럽 환경 기준치이다. 유로 3의 경우 1km를 달렸을 때 질소산화물(NOx)이 0.5g, 미세먼지(PM)가 0.05g 미만이고 유로 4는 이보다 2배 강화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은 0.25g, 미세먼지는 0.0025g 이하이다. 배기가스를 유로 기준에 맞추지 못한 자동차는 유럽연합에 수출이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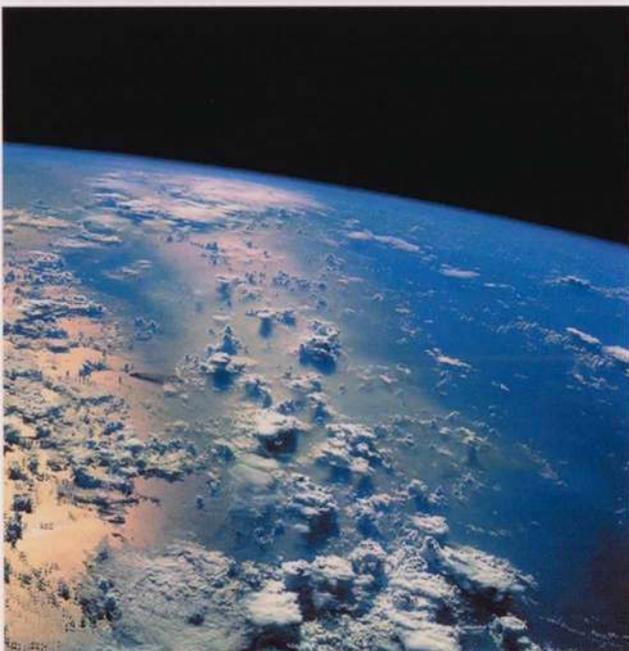
2)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사업

·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이용하여 노후된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전환하고, 절약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에너지절약사업



저탄소 녹색사회의 성공적 진입

세계는 이미 저탄소 녹색사회로 전환해가고 있으며, 우리도 그 변화의 물결에 깊이 들어와 있다. 2012년 이후 기후변화 협약 가입 시점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타 국가의 잉여분을 사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부강한 국가로 가는 원동력이다.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참여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각종 제한요소 해결과 관련분야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법적, 예산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저탄소 녹색사회의 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타파한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봄의 길목에서, 그대를 그리다

- In Pursuit of Spring -

편집실 사진 권순정 | 제20전투비행단

봄 ①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첫째 철. 겨울과 여름 사이의 계절로 입춘에서 입하 전까지를 이룸. ¶ 만물이 소행하는 봄. ② '한창 때'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인생의 봄. ③ '희망찬 앞날'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나와 내 가족의 봄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씨를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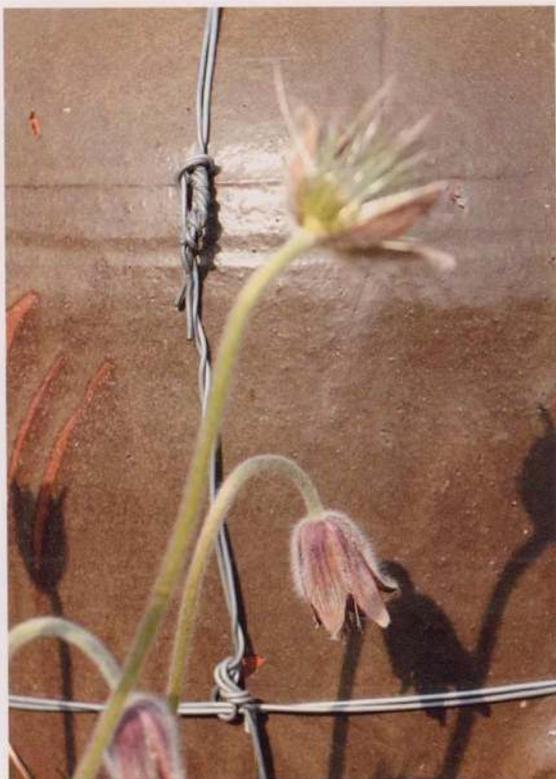


깊은 밤
긴 겨울새벽
만물의 숨소리가 고요해지고

칠혹 같은 어둠, 그 적막 속에서
흔들리는 달빛아래
길을 잃은 사슴떼

누구를 기다리나요?
무엇을 그리워하나요?
옛 기억을 추억하나요?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그대에게
그대는 하늘에게

보이나요?
들리나요?
느끼나요?

봄이 오는 모습을
봄이 내는 소리를
봄이 주는 생동감을

오랜 기다림 끝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수줍게 우리 곁에 다가오는 봄을
소리 없이 간절히 그리운다.



OLD School

- 예비역 주임원사, 교관생활을 회상하다 -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김원봉



로버트 게일러 상사, 1958년 교관생활 때 찍은 사진이다.

텍사스 주의 렉랜드 공군기지에 도착한 공군 훈련병들은 합동 전투 환경에 적합한 2주간의 연장훈련을 받게 된다. 기본군사훈련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해왔는지 회상하는 동시에, 로버트 게일러 예비역 공군 주임원사는 교관으로서 그의 경험을 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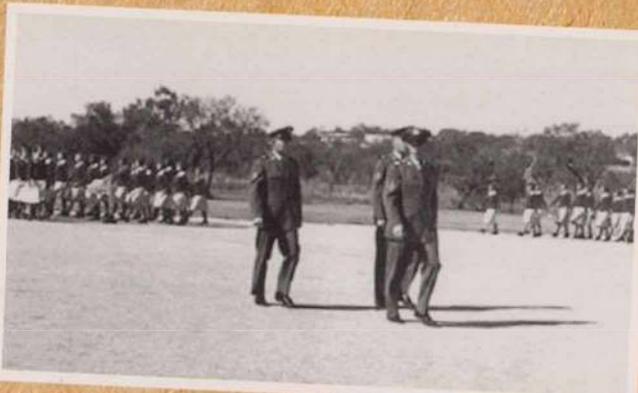
1977년 공군 주임원사 로버트 게일러

1957년 봄, 당시 게일러 상사는 교관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다. 그는 한국의 군산기지에서 공군 현병임무를 마무리해가던 무렵, 다음 보직을 받기 위해 전속신청 사무실에 들어갔다.

게일러 상사는 그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의 우선순위를 명시한 "드림 시트"에 렉랜드 공군기지를 포함한 4개의 기지들을 적어서 제출했다. 행정병은 그에게 렉랜드에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이런 행정병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게일러 상사는 병사에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더 물어봤다. 당시 행정병이 한 말은 "두고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뿐이었다.

8월경, 전속 명령이 발행되었고, 게일러 상사는 렉랜드 공군기지 보직에 배정되었다. 그는 큰 행운이 찾아왔다고 믿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날 밤 아내에게 편지를 써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텍사스주 라레도 시에 잠시 들러 가족을 만난 그는 렉랜드에 갈 준비를 하였다. 늦은 9월경 게일러 상사는 공군 현병대대에 도착하여 신고를 준비하였다. "그 당시 그곳 사람들은 게일러 상사라는 사람이 우리부대 신고예정 목록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일러 주임원사는 이렇게 말하며, "그렇지만 기지 반대편 끝에 있는 기본군사훈련단의 교관으로 보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보다 호기심



여군 교육대대의 점호준비 도중, 로버트 게일러 상사는 맨 앞 중임에 서있다.

이 들었어요. 헌병대에서 말해준 위치대로 가보니, 기본군 사훈련단에서도 게일러 상사라는 이름은 신고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답니다. 완전히 길 잃은 어린양 같은 느낌이었어요.”라고 덧붙였다.

게일러 상사의 명령을 세세하게 읽어본 후, 행정관은 “아, 교관으로 부임하게 되셨군요!”라고 말했다. 게일러 상사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요?” 하고 물었다. “자원하시지 않으셨나요?”라고 행정관은 명령서를 가리키며 답했다. 군산에서 게일러 상사를 담당한 존슨 일병은, 게일러 상사를 교관 지원자로 처리했던 것이다. “그날의 저만큼 진로변경에 놀라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라고 게일러 상사는 말했다.

그는 랜랜드 공군기지에서 4년 4개월간 근무하였다. 모든 교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임 당일부터 실무에 착수하게 되었다. 얼마 후, 게일러 상사는 그의 첫 6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첫 6주는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지요.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음 기수를 받을 때 더욱 더 준비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요.”라고 말하면서, “일에 당장 뛰어들었고, 실수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근도 수없이 했던 것 같군요.”라고 게일러 주임원사는 말했다.

‘올드스쿨’ 식의 훈련

당시의 훈련병 교육은 오늘날의 훈련병 교육과

많이 달랐다. 통수기구의 권력과 위상을 보조하기 위한 권위적 지휘계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이 체계는 한국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운용되었다. 공포와 위협은 훈련병의 태도와 노력에 비례한다는 생각이 통용되었다며 게일러 상사는 회상한다. 그 역시 1948년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현재의 공군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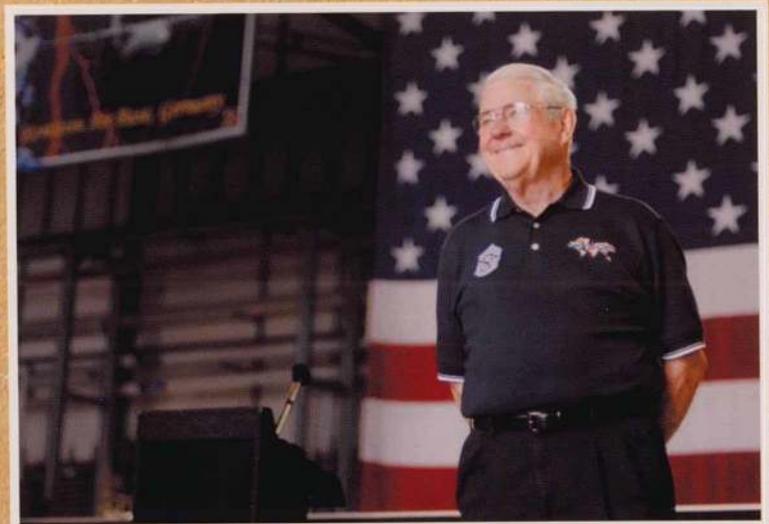
“저의 감독관은 저에게 ‘내가 폴짝 뛰라고 하면 뛰고, 내가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 두 발이 땅에 닿아선 안 될 것이야’라며 겁을 주었지요. 상급자일 경우, 하급자에게 명령을 할 권한이 있었고요.”라며 게일러 원사는 말한다.

1957년 그가 교관의 임무를 시작하였을 때, 이러한 권위적인 지휘계통은 일반적이었으며, 교관들의 교육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훈련병을 겁주고, 혼내며, 얼굴 가까이 다가가 소리 지르며, 명령하는 것은 흔한 행위였다.

“분위기 적응이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리더의 참여적인 태도가 더욱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미 지휘관의 위치에 있을 때 경험으로 배웠었기 때문이죠.”라며 그는 “결국, 몇몇의 사람들은 저에게 ‘할머니’라는 별명을 주고 훈련병들의 응석을 받아준다며 놀리곤 했습니다.”

당시 흔한 훈련방식 중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입해서 교육생의 태도를 수정하는 것이었다. 게일러 상사가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당시에 이러한 방식의 교육으로 인하여 보직 해임된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2년간량 남성 훈련병 대대에서 일을 한 후, 게일러 상사는



예비역 원사 로버트 게일러 씨는 유럽 등 전 세계의 많은 공군인을 만난다.

선임 부사관의 자격으로 여군 훈련대대에 부임했다. “권위적인 교육방식은 조금 덜 했던 것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성 교관들 중 가차 없는 방식으로 인해서 유명했던 교관들이 몇몇 있었죠.”라고 게일러 상사는 회상하며, “교관들의 당시 교육방식은 단순히 그 시대의 공군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렉랜드 공군기지를 1962년 떠났으며 1970년 중반까지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 기간 도중, 교관들이 사용했던 교육 방식은 많이 변화였으며, 게일러 원사가 돌아왔을 때에는 언어적, 육체적 고통을 통한 교육방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의 기본군사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된다. 근래의 훈련방식의 변화는 기본군사훈련의 내용과 파견지 현지 업무 적용에 주된 초점을 둔 훈련기간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만약 2008년까지의 변천사를 보신다면, 교관의 교육방식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식의 동기부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겠죠.”라고 게일러 원사는 말하며, “줄여서 말하자면, 지금의 방식이 예전의 방식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또 결과 또한 좋으리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훈련을 마친 공군병사는 공군의 체계에 더욱 더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라고 확신하였다.

연장된 훈련기간에 대해서, 게일러 원사는 이러한 변화는 필요한 변화라고 말하였다. 공군이 테러와의 전쟁에 지속적으로 임하는 한, 관계자들은 공군병을 훈련하기 위하여 더욱 더 발전된 방식을 장안하고 성장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공군이 전투에 임하는 지휘관들에게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군은 실전 전투 기술과 여러 가지 전술 등 이전에 필요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교관들은 병사의 교육을 그들이 훈련이 끝난 후 생존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교관의 임무 : 공군에 기여

게일러 원사는 그가 교관으로 보냈던 나날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교관 활동은 그의 진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오늘의 교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현재 부여받은 역할의 중요성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관들은 훈련병이 민간인에서 절제 있고 멋진 공군병사로 거듭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또 교관생활을 될 수 있는 한 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회상해보면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니까요.”라고 더했다.

매년 게일러 원사는 미국과 해외의 기지를 방문하여 강연과 조언을 한다. 그는 공군 리더십 학교와 부사관 교육대 임관식에 참석한다. 그는 전선에서 임무수행 중인 공군병과 국내외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활동하고 있는 공군인들을 많이 접한다.

“여행을 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공군 병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렉랜드 공군기지 교관의 소요에 대한 말을 전합니다. 교관의 임무와 기회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교관 보직을 피하지 않을 것을 조언합니다. 4년간의 교관임무수행 도중, 저는 31년간의 공군에서의 활동 중 그 어느 때보다 공군에 대하여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교관으로서 얻은 값진 경험과 지식이 나중의 진급과 수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4년의 기간 동안, 저는 교관이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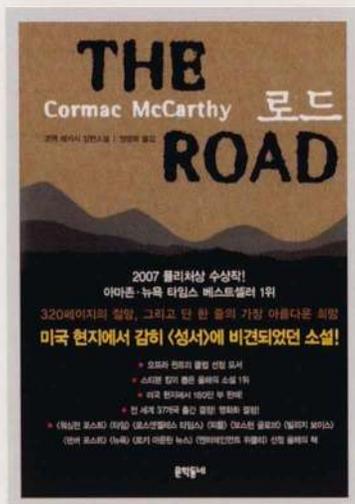


여군대대에서 게일러 상사는 교육검열을 지휘하고 있다. 교관활동기간 중 그는 남/여 공군 훈련병 교육에 참여하였다.

THE ROAD

코맥 매카시 지음

THE ROAD



THE ROAD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서부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며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매카시가 70세가 넘는 나이에 집필한 이 소설은 내가 접한 문학작품 중 가장 큰 담력이 요구되는 책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의 심판’, 우리 선조들의 비전(秘傳)에 등장하는 ‘후천개벽의 대재앙’, 살아있는 유기체인 지구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판을 뒤엎고 자정(自淨) 활동을 한다는 ‘가이아 프로젝트’ 처럼 순지구적 재앙 뒤에 살아남은 인류의 모습이 그려진 이 작품은 읽는 내내 나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게 했다.

더욱이 재앙의 원인과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생존을 위해 서로를 죽여 인육을 먹고 사람과의 조우가 최대의 위협이 되어버린 잿빛 세상에 던져진 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첫 페이지부터 등장시킴으로써 작가는 초장에 독자들에게 어떠한 배려도 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작가의 냉혹한 상상력은 시종일관 문명이 사라진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며 희망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헤이즈(haze)와 스모그로 덮여버린 지구는 빙하기로 접어들어 마냥 춥다. 온기가 있을법한 남쪽을 향해 가는 남자와 소년(父子)의 여정은 공룡을 피해 도망 다니며 목숨을 부지했던 초기 인류의 모습처럼 애처롭기 그지없다. 자살을 위해 두발의 탄약이 장전된 권총을 몸에 지닌 채 여행을 지속하는 남자에게 희망은 없어 보였다. 그와 죽음 사이에는 오직 ‘아들’만이 있었다.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남자가 존재해야 하

는 모든 것이었다.

부성애(父性愛),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의 부성애는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생존이 곧 고통인 상황에서 삶을 지속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아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마지막까지 그 앞길을 축복한다.

나는 독자들이 이 소설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작가의 상황설정이 끔찍스럽더라도 그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고리를 가진 주인공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인간에게 사랑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은 마지막 인류가 지구를 떠날 때까지 간직해야 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 물리적 우주의 진리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 언젠가는 우리 생명의 근원인 태양도 그 빛을 잃을 날이 있을 것이다. 즉, 이 지구에서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이 사라질 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생명체인 대우주(大宇宙)는 이 지구별에 시공(時空)의 본질인 사랑이 존재했고 그 사랑을 통해 엄청난 배움과 희망을 얻었던 찬란한 생명들이 품기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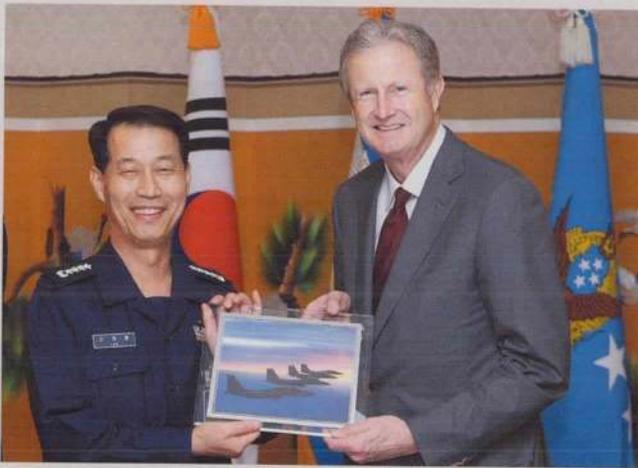
끝으로, 이 놀라운 작품을 진중문고(陳中文庫)로 선정하고 보급한 우리 국방부의 해안에 경의를 표하며 공군 장병들의 일독을 권한다. ㉞

Hot SKETCH



◎ 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 강화

참모총장은 2월 12일 취임인사차 공군본부를 방문한 항공우주연구원 이주진 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과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올해 공군창군 60주년, 국제우주대회 60주년 등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이들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양측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보잉사 IDS 사장 접견

참모총장은 2월 11일 Slam Eagle과 Peace Eye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신뢰 구축을 위해 공군본부를 방문한 보잉사 IDS 제임스 엘배(James Albaugh) 사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보잉사가 우리 공군의 방위력 증강사업에 기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하고,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리부속 지원 협조와 안정적 후속 군수지원을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IDS : Integrated Defense System의 약자로 군용 항공 및 우주사업 분야가 주력이다.



◎ 항공력발전연구원 위촉식

참모총장은 2월 9일 공군력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항공력발전연구원(14명)을 위촉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위촉식 후 위원들과 환담을 함께하며 "항공력발전연구원으로 위촉된 것을 축하하고 왕성한 연구활동을 기대한다"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공군을 바라보고 진단하는 연구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전우수부대 시상식

참모총장은 2월 4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 2008년 안전우수부대 시상식을 주관하고 현지 부대의 공군 재조형 현장을 지도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오늘 이룩한 결과에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한 가운데 강한 훈련을 하면 안전도 지킬 수 있고 강한 전사도 양성할 수 있다"는 평소 안전에 대한 지휘철학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 후 17전비, 29전대와 6전대의 공군 재조형 현황을 점검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믿음직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군 재조형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30년 근속 휘장 수여

참모총장은 2월 2일 지휘부 회의실에서 계룡대지역 근무자 중 근속 30주년을 맞이한 장교 27명에게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을 수여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격려 말씀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묵묵히 군인으로서 소임을 다해 온 것은 무엇보다 값진 인생이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며 그간 공군 발전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 폴란드 공군사령관 의장행사·접견

참모총장은 1월 28일 공식 초청으로 방한한 폴란드 공군사령관 안드세이 브와시크(Andrzej BŁASIK) 중장과 한-폴란드 공군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의를 증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모총장은 "올해가 한-폴란드 수교 2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인만큼 폴란드 공군사령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공군간 군사교류가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공군에서 추진 중인 신(新) 비행교육체계와 T-50 항공기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폴란드 공군에서 우리의 T-50 국산항공기를 고등훈련기로 운용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3훈련비, 인도네시아 공군대표단 부대방문

2월 18일, 한·인도네시아 공군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도네시아 공군작전참모부장(소장 Pandji Utama) 등 6명이 제3훈련비행단을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 공군대표단은 도착 후 비행단 현황브리핑을 받고 SIM* 탑승체험을 통해 한국 공군의 신 비행교육체계를 몸소 체험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항공산업의 메카인 KAI로 떠났다.



◎ 제5전비 헌병대대, "자장면 데이"

2월 12일, 5전비 헌병대대는 "자장면 데이"를 열어 헌병대대원들이 동료들과 함께 자장면을 취식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중식 이후 헌병대대 장병들은 해성관에서 초병행동요령 및 사고예방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고, 이어서 영화 "신기전"을 단체관람하며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 제15훈련비,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제15훈련비행단은 11일 오후 비행단 인근 청계산 일대에서 성남시청 공무원, 성남시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다. 장병 50여 명과 성남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장병들은 다람쥐,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 근처에 약 600kg의 사료를 뿌렸다.

2009 March



◎ 교육사 이광준 하사, 외박 중 금품 절취 범인 검거

외박 중이던 부사관 초급 교육생이 금품을 절취한 범인을 검거,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졌다. 2월 14일 특기교육 중 모처럼 외박을 즐기던 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 이광준 하사(21세, 부사후 202기)는 서산 시내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등 전과 17범인 범인이 23:00시 경, 식당 1층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것이다. 소리를 듣고 도망치는 범인을 발견한 이 하사는 300여m 가량 범인을 추격했고,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태권도 실력으로(공인 4단) 범인을 검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중부지구대 순찰팀에 인계했다.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이 하사는 "외박 전 교육 때 군인다운 군인으로서 행동하라는 훈육관님의 말씀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위에서 많은 칭찬을 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방포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방공포병 부대의 '따뜻한 겨울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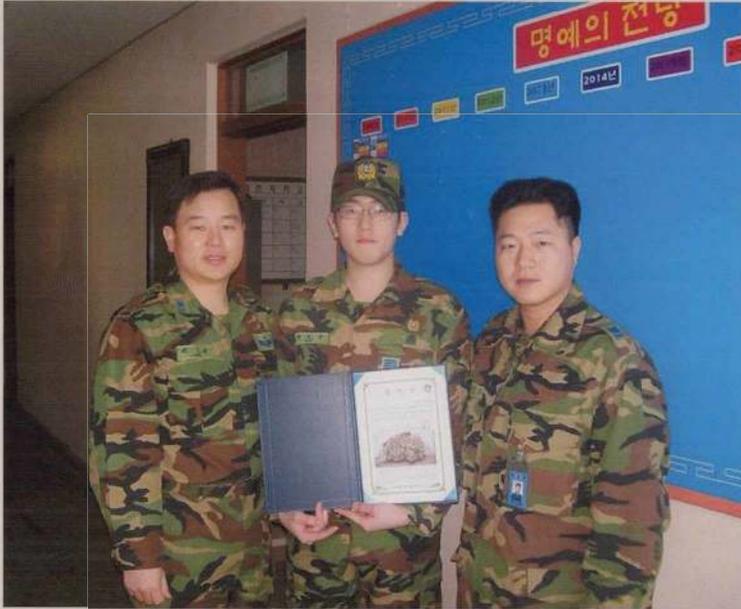
방공포병사령부는 부대(사령부 및 여단 본부, 예하 포·정비대)별로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을 맺고 사회봉사활동과 불우이웃 성금전달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방공포병 부대는 동절기 전국 각지에서 사회봉사활동 19여 회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11여 회를 하며 활발한 대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겨울 시작과 함께 방한공사, 부대원의 성금으로 구입한 난방유 지원 등 맞춤형 이웃돕기 활동이 부대 인근 주민들의 겨울나기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다. 대부분 산간지역에 자리잡은 포·정비대의 장병들은 대민 봉사활동을 위해 고지에서 내려와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 남부지역에 위치한 8331부대의 장병 10여 명은 최근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자

매원에 방문하여 지붕 및 망가진 시설을 보수했으며, 최전방 지역의 1,400m 고지에 위치한 8979부대는 겨울을 맞아 부대원들이 모은 성금을 바탕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8542부대의 장병 30여 명은 지난달 작정이 없는 날을 골라 인근 산의 겨울철 등산로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등산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도와주고 있다.

이웃돕기에 방공포병사령부 및 여단 본부도 예외가 아니다. 방공포병사령부 본부는 지난 연말 평택시 진위면사무소에서 추천받은 2가구에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1여단 본부는 경산 하양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천혜요양원에 방문하여 위문과 함께 건물 주변지역을 청소해주었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보답으로 요양원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공군은 지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백호준 병장(가운데)이 호크교육포대장(왼쪽, 소령 채원), 주임원사(오른쪽, 상사 김지열)와 함께 감사장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은 "전역을 하면서 부대로부터 감사장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가끔 실수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군 생활을 멋지게 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처럼 지냈던 포대원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기고 가니 정들었던 포대원들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명예의 전당 입성 소감을 말했다.

방포교 호크교육포대장(소령 채원, 공사 45기)은 "부대에서 장병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는 너무도 소중하다. 그래서 조국 영공방위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명예스럽게 전출/전역하는 장병들에게 부대 차원에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감사장 수여 및 명예의 전당 운영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부대를 떠나는 장병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남은 부대원들에게는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및 군 복무의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 방포교, 군 부대 떠나며 자랑스럽게 '명예의 전당' 입성!

- 방공포병학교, 전출/전역 장병에게 감사장 수여 및 명예의 전당 입성
- '명예의 전당'은 아쉬움과 기쁨,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는 장소

"필승! 신고합니다. 병장 백호준은 2009년 2월 17일부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방공포병학교 호크교육포대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부대를 떠나는 장병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전출/전역자의 이름, 사진 등을 게시한 '명예의 전당'을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호크교육포대에서 전달하는 '감사장'에는 조국 영공 방위를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멋지게 임무를 수행하고 전출/전역을 하는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전 부대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있고, 감사장을 받은 장병의 이름은 '명예의 전당'에 사진, 복무기간, 복무소감과 함께 게시된다.

방포교 호크교육포대에서 처음으로 감사장을 수여받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걸게 되는 백호준 병장(22세, 병 647기)

◎ 제16전비, 종합기지방호훈련

2월 5일 제16전투비행단에서는 '09년도 합참검열을 대비하여 전시 기지 생존성 확보 및 지속적인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종합기지방호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16전비 요원들이 기지방어훈련과 화학전 방호훈련을 병행 실시하면서, 적 침투상황에 따른 방어병력 운영절차 연습 및 전시 기지방어 작전계획에 따른 임무별 수행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훈련을 통해 16전비 장병 및 군무원들은 기지내 동시다발적인 상황발생에 따른 각종 훈련절차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작전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2009 March



◎ 공·육 합동 화생방 훈련

2월 5일, 합참 검열대비 및 전시 화학전하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공·육 합동 화생방 종합 훈련이 기지 내에서 실시되었다.



◎ 제17전비, 활주로 피해복구훈련 및 항공기 제독훈련 실시

2월 10일부터 이틀 간, 청주기지는 활주로 피해복구훈련 및 항공기 제독훈련을 실시하였다. 활주로 피해복구훈련은 10일 오후 13시부터 기지 활주로 피해복구훈련장에서 실시되었으며, 활주로 파곡으로 인해 폭파구가 발생하였다는 상황이 발령됨에 따라 청주기지 시설대와 제1115 공병단으로 구성된 활주로 복구반 장병들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였다.

11일에 실시된 항공기 제독훈련은 비행기지 화학오염 상황 시 긴급궤환 및 재출동 항공기의 전투력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화생방 지원대 주관하에 운항실 앞 주기장에서 시행되었으며, 화생방 지원대의 제독요원, 전문 항공기 제독반, 경비반, 의무반 등 분야별 전문요원은 오염항공기의 전투력을 복원시키기 위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완벽한 제독작전을 수행, 완료하였다.



◎ 제18전비, 늘 사랑의 집 봉사활동

2월 18일, 제18전투비행단에서는 늘 사랑의 집 봉사활동이 있었다. 이번에는 봉사활동과 함께 부대에서 준비한 해산물 세트를 전달하였다.



◎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비행단 공부방

- 제20전투비행단, 부대 내 군자녀 학습지원 위한 공부방 운영
- 군인 선생님이 구성된 학습 도우미 봉사활동 실시

군장병으로 구성된 선생님의 열띤 강의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짐작케 한다. 20전비에 근무 중인 장병들이 군자녀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해 온 것이다.

관사 공부방은 비행단의 지역적 여건으로 인한 군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공부방을 통해 관사 가족간 공동 유대감 형성 및 참여하는 병사들의 자긍심 고취 등 부대 정신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정 안정을 통해 장병들이 부대 근무 및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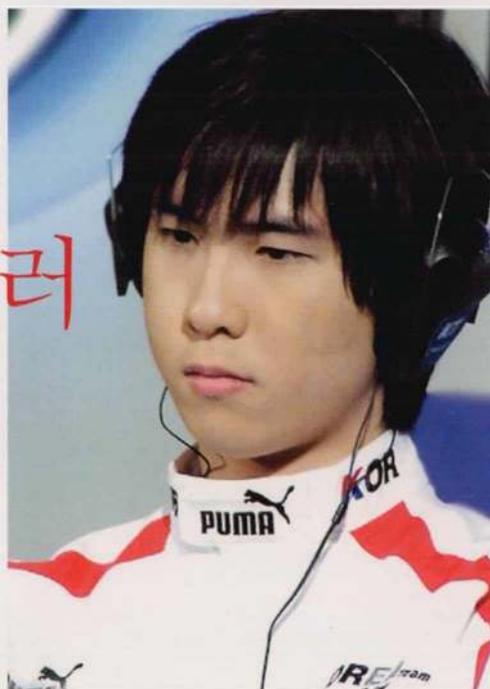
관사공부방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군장병 선생님들의 열의와 학습지원에 차츰 동화되어 나 스스로도 학업능률 향상에 노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늘 밝게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설명해 주니까 어려운 수학문제도 술술 풀리는 것 같고, 영어 단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다"며 "공군 선생님들이랑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말을 덧붙였다.



자이언트 킬러

- 차재욱에 대하여 -

☞ 대위 유선의 | 방포사 정훈공보실



차재욱을 아시나요?

최근에 스타크래프트를 접한 사람이라면 차재욱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2004년 한창 차재욱이 '날리고 있을 때' 그의 경기에 그렇게 감탄하고 열광했던 나조차도 지난 2~3년 동안은 차재욱의 경기를 보거나 떠올렸던 적이 별로 없을 정도다. 하지만 2004년 차재욱이 이루었던 기록들은 정말 대단하다.

프로리그 10연승(그 당시 최고기록).

전기리그, 후기리그 연속 MVP.

역대 최고의 죽음의 조(마재운, 이윤열, 강민) 통과.

기요틴에서 강민의 14연승을 저지한 최초이자 마지막 선수.

아무도 예상 못한 KOR의 프로리그 우승에 Key Player.

팀 리그에서 보여준 최강의 경기력...

프로게이머가 된 지 2년이 넘도록 빛을 못보던 중고신인에서, 강민(당시 KTF), 이윤열(당시 팬택), 나도현(당시 한빛) 등 당시 최강의 선수들을 차례로 꺾으며 '자이언트 킬러'로 거듭났던 그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최근 공군에 입대한 홍진호와 차재욱을 두고, 많은 이들이 '도대체 차재욱은 누구야?' 라고 묻는 것이다.

차재욱 v. 강민 in 기요틴(2004 SKY 프로리그 1라운드 KOR v. KTF)

'스타 좀 안다' 하는 사람이라면 '차재욱' 하면, 혹은 '강민' 하면 벌써 4년이 넘게 지난 이 경기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강민틴'이라 불리던 기요틴에서 13승 0패를 기록하고 있던 강민, 이윤열, 나도현 등을 꺾으면서 자이언트 킬러로 기세를 높여가던 차재욱이 기요틴에서 맞붙었던 그 경기.

자신의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는 기요틴에서 자신감 넘치던 강민은 차재욱의 본진을 정찰하던 프로브로 가스러시를 감행한다. 안 그래도 암울한 맵에서 가스테러까지 당하자 발끈한 차재욱은(발끈했다는 건, 저의 생각입니다) 강민의 기지 앞에 과감한 얼굴병커를 시도하는데, 여기에 강민이 방심을 했는지 큰 피해를 입고, 조이기까지 당하고 만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강민의 묘기 대행진. 13승 0패의 기록을 깨고 싶지 않아서일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정도의 집요한 전략과 컨트롤들이 등장한다. 차재욱의 병력과 병커를 무시하고 병력들이 빠져나가고, 산들린 리버와 템플러 활용... 강민은 마치 도진광과의 경기(패러독스)에서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겨버린 임요환의 플레이에 버금가는 빼어난 경기운영과 컨트롤을 보여주었다. 차이가 있다면 임요환은 이기고, 강민은 결국에 졌다는 것. 하지만 강민과 차재욱은 그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팬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특히



차재욱은 여기서 '자이언트 킬러'의 명성을 굳히게 된다.

차재욱이 해주어야 할 일 - '육브라더스'의 부활

- 2004년엔 SKY 프로리그 1, 2라운드 개인전 다승왕.
- 2005년엔 SKY 프로리그 3라운드 결승전 MVP, 통합 MVP.
- 2006년엔 신한은행 스타리그 2006 시즌 116강, 시즌 224강.
- 2007~2008년엔 내세울 성적 없음.

차재욱이 우선 해주어야 할 것은 '부활'이다. 공군에이스는 전통적으로 테란라인이 약했다. 임요환 혼자서 버티다시피 하던 테란라인이 이제 고스란히 한동욱에게로 넘어갔다. 최근 9승 1패로 잘나가던 진영수(STX)를 꺾고 기세를 올린 한동욱이지만, 혼자서 버티기에 어려움이 많다. 서지훈이 합류하기 전까지 차재욱이 부활해주지 않는다면 한동욱 혼자서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물론 이주영 혼자서 떠받치고 있는 저그라인도 급하기는 매한가지지만, 홍진호와 박태민이 합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강력한 저그라인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 하지만 한동욱, 서지훈에 살아난 차재욱이 가세한다면 강력한 테란라인은 구축될 수 있다.

2004년처럼 10연승을 하면서 팀에 보탬이 되는 것도 좋지만, 팀의 연패를 끊을 자이언트 킬러로서의 면모만 회복해줘도 팀에는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자이언트 킬러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판도에서 상대편의 강력한 에이스를 꺾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왜 모르냐고 되묻고 싶다.

현재 한동욱의 약점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군에이스의 구조적인 면에서 오는 것이다. 지난해 한동욱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위너스 리그에 접어들면서 더 힘들어

졌다. 왜냐하면 그날 경기에 필요한 6가지 맵과 세 가지 종족을 모두 연습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6곱하기 3의 경우의 수에 다양한 선수들의 스타일까지 더해보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연습량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맵과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편은 '이 맵에서는 어차피 한동욱'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해오게 되는데 반해, 한동욱은 암흑 속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연습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차재욱이 부활하게 되면 다른 팀 선수들에게 '차재욱도 있다'는 두려움과 대비하는데 필요한 부담감을 지울 수 있다. 아무리 잘나가는 선수라도 부활한 '자이언트 킬러'라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재욱의 부활은 한동욱까지 살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차재욱이 해주어야 할 '육브라더스'의 부활이다.

사실,

사실 차재욱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랐다. 스타에 대한 관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도 아는 게 고작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모를 것 같아 빈약하지만 차재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아 보았다.

지금 명성이 없다고, 과거의 영광이 오래 전 일이라고 해서 현재의 실력까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차재욱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응원할 줄도 모르고, 어떤 경기를 기대해야 할지도 모르게 되면, 차재욱은 공군에이스에서 그저 그런 선수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응원해줄 때 차재욱은 우리 기억에 남을 경기들을 펼쳐줄 것이다. 나쁜 기억이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낫다. 지금부터 차재욱이 보여줄 경기들을 우선 보고나서, 그리고 나서 각자 차재욱에 대해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㉞

Communication Wanted!

생각대로 공군을 바꾼다

-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2009 동계 워크숍 -

글·사진 소령 리동섭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많은 사람들은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리더의 통찰력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제공하는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믿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내부 수직·수평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성원의 참신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안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공군의 노력을 살펴본다.

대전 수련원에서 지난 2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2009 동계 워크숍」이 바로 그것이다. 공군은 이미 지난 2007년 여름에 공군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공군을 바꾸어 나갈 아이디어를 공모해 제안자가 참모총장 앞에서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작했는

데, 그것이 바로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워크숍」이다. 그동안 병사는 물론 젊은 위관장교, 부사관에서 군무원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독특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현실화함으로써 공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활력소로 삼아왔다.

올해로 3년째, 횡수로는 여섯 번째인 이번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2009 동계 워크숍」은 소위부터 대위까지 젊은 위관장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 공군부대에서 자체 공모를 거쳐 공군본부에 제출한 202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우수 제안 20편을 선정해 제안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이전의 워크숍과는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과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공모의 내용들은 병사들 입장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분위기 또한 굉장히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은 위관장



교가 대상이다보니 대부분의 제안들이 각 임무 현장에서 병사와 부사관들을 지휘/감독하는 초급 관리자의 시선에서 그들의 고민이 반영된 산물이었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20명은 2박 3일 동안 모여 다시 토의·발표하고, 이를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제안을 전 참가자와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는데, 대부분의 제안들이 현 공군의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부의 제안은 현 제도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등 심사위원들과의 심도높은 토론이 가능했다. 최종본선에 오른 여섯 명의

제안자들은 참모총장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최종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17전투비행단 최명선 대위(30)의 「항공우주군 건설 인식 확산을 위한 우주인 체험단 발족」이 최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20편의 제안뿐만 아니라 202편의 모든 제안은 한 편도 빠짐없이 공군본부의 관련 부서에서 그 타당성 및 가능성을 평가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훌륭한 제안들이 하나씩 정책으로 현실화되어 「공군 재조형」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㉔

〈짚막 인터뷰〉 — <‘최우수 제안상’ 수상자 제17전투비행단 최명선 대위>

Q 본인 소개

A 제17전투비행단 153전투비행대대에서 WSO(Weapon System Operator, 편집자 주 - 보통 후방석 조종사로 불리며 F-4, F-15 등 복좌로 운영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레이더 등 항전계통, 무장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동승비행군무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최명선 대위입니다.



Q 소감 한 마디!

A 우연한 기회에 동계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젊은 위관장교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앞으로의 군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제안 소개!

A 「항공우주군 건설 인식 확산을 위한 우주인 체험단 발족」입니다.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 사이에 확산하기 위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시설들을 방문해 직접 체험하는 우주인 체험단을 발족해 이를 통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공군의 노력과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현주소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자는 내용입니다.

Q 기존 항공우주소년단 캠프와 차별화

A 기존의 캠프들은 조종사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군의 훈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한 내용은 그런 공군 조종사의 생활 체험과 더불어 우주센터나 항공우주박물관 등을 견학함으로써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Q 워크숍의 의미!

A 무엇보다도 젊은 위관장교들과 높으신 분들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힐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 격차를 좁힘으로써 자신들의 의견도 공군의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골계가 물 위에 살고 있나요?

- 조카와 함께한 천수만 탐조 -



물이 얼지 않은 곳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물닭

며칠 전 서울에서 온 조카들에게 천수만의 겨울철새를 보여주겠다며 겨울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천수만의 간월호 상류에 있는 해미천으로 데리고 갔다. 평소 새들과 곤충에 관심이 많아서 산과 들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조카들은 신이 나서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미리 준비해 온 쌍안경과 조류도감, 메모장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에서 나중에 조류학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던 당당함이 말뿐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대에 찬 아이들과 도착한 해미천에는 다행히 겨울새들이 많이 있었다. 따뜻한 남쪽지방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쪽으로 날아가던 중에 이곳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아 온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 300여 마리가 우아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구름처럼 모여서 활동을 하는 가창오리들도 서울에서 온 조카들에게 멋진 쇼를 보여주었다.

비행접시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해파리 모습을 만드는가 하면 기다란 로켓 모양으로 수시로 형태를 변형시켜 가면서 신기하게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날아 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30여 만 마리가 머리 위로 낮게 이동하면서 힘찬 날개 소리와 함께 환상적인 퍼레이드를 펼쳤는데 가창오리의 군무(群舞)를 바라보던 조카들의 입은 다물어 질줄을 몰랐다.

그 외에도 물 위에는 예쁜 여름색으로 옷을 바꿔 입은 청둥오리들도 쌍쌍이 짝을 이루어 한가롭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양증맞은 논병아리 가족들은 아이들이 친구같이 보였는지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와서 자맥질을 하며 재롱을 부리곤 하였다. 또한 그 옆에서는 남쪽에서 올라온 백로 무리에 섞여서 먹이 활동을 하는 노랑부리저어새들이 여러 마리 있었는데 주걱 같이 생긴 부리로 낮은 물을 이리저리 저으며 한가롭게 먹이를 찾고 있었다.

“저 새는 천연기념물 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인데 매우 귀한 새야.” 라고 알려주자 조카가 바로 말을 받았다. “부리가 마치 밥주걱같이 생겼네요. 사람들이 저 새 부리를 잘라다가 밥주걱을 만들어서 새들이 많이 줄어들었나 보죠?” 라며 신기하게 바라보던 조카가 이번에는 엉뚱한 대답을 하여 주변에서 함께 탐조 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하였다.

갑자기 조카가 살그머니 내 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모부 저기에 오골계가 있어요. 물 오골계인가 봐요? 오골계가 물 위에 살고 있나요?” 라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다.

물 오골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더니 그곳에는 온몸을 검정 깃털로 치장한 검정색 새들이 갈대밭 사이

에서 먹이를 찾으며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다. '물닭가
죽'이었다.

순간 어린 조카의 상상력에 감탄을 하였다. 나는 도감을
보며, 또는 조류학자들과 함께 다니며 배우고 익힌 새의 이
름을 거부감 없이 사용하곤 하였는데 어린 조카는 새의 이름
을 물어보지 않고 즉석에서 지어내는 것이었다. 그것도 현재
알려진 새의 이름과 거의 비슷하게 지어내서... 한편으로는
조카들이 지어낸 새의 이름이 더 신선하고 친근하다는 생각
이 들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난 봄에는 아파트 앞의 논에서 개구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끄럽게 울어 댔는데 그때도 조카는 "와~~ 좋다! 이
곳엔 개구리 아파트가 있어요."라며 탄성을 자아내곤 하였
다. 앞으로 이름을 모르는 새가 나타나면 조류학자들이 이름
을 짓지 말고 어린아이들에게 공모를 하여 선정하면 잘 어울
릴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물닭의 단결력

물닭들이 평화롭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해미천에 말뚱가리가
나타났다. 말뚱가리는 맹금류 중 동작이 비교적 둔한 편에
속하지만 쥐 또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겨울새들은 표적이



물닭 부부가 눈 위에서 한가롭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



물닭 부부가 눈 위에서 한가롭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



물닭이 살얼음이 있는 곳을 조심스럽게 걸어 보고 있다.



물이 얼지 않은 곳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물닭



위험이 닥치면 이렇게 한군데 모여서 위기에 대처한다.



물닭이 주변에 있는 흙으로 먹이를 찾으러 올라가고 있다.



눈 위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물닭 커플



주변에 있는 잡초 더미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물닭 무리



먹이가 부족하니 호수 언덕까지 나와서 먹이를 찾고 있다.

될 수 있고 한번 포착이 된 타깃은 잘 놓치지 않는 편이다. 평화롭게 노닐던 물닭들에게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흩어져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던 모든 물닭들이 순식간에 한 군데로 다 모여들었다.

이제야 말로 독 안에 든 쥐다. 날개가 작아서 말뚝가리보다 빨리 날 수도 없고 계속 물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수도 없으니 말뚝가리는 천천히 쉬어가면서 맛있게 생긴 물닭을 골라가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었다.

하늘에서 정지비행을 하며 먹잇감을 노리던 말뚝가리가 공격을 시작했다. 물닭들은 푹푹 뭉쳐서 말뚝가리를 향해 물을 튀기며 적극 방어를 나섰다.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말뚝가리의 첫 공격은 실패했다. 그리고 몇 번 공격을 반복했지만 적극적으로 물을 뿌리며 저항하던 물닭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결국 말뚝가리는 사냥을 포기하고 떠났고 해미천에는 평화가 찾아 왔다. 아주 나약해 보이던 물닭들이 말뚝가리에게 대항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조카들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다. “약한 새들도 굳게 뭉쳐서 힘을 합하니까 매가 잡아먹지를 못하네요.”라며 위기가 있을 때 힘을 합하면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물닭들의 생태를 보면서 깨달은 것 같았다.

물닭의 퇴치

물닭은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시간을 물 위에서 보낸다. 강과 계곡처럼 물의 흐름이 심한 곳에서는 거의 생활을 하지 않고 흐름이 완만하거나 멈추어 있는 호수나 작은 연못을 좋아한다. 결국 공항이나 기지 내에 물이 고인 곳이 있다면 물닭이 서식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평소에는 날아다니는 것보다 물 위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삶이나 고양이 같은 천적이 공격해 오면 먼 곳으로 날아간다. 활주로 내 배수로 등 습지에서 생활하던 물닭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아 이륙하던 항공기 방향으로 황급히 날아간다면 항공기에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천적을 피해

날아가는 새가 놀라서 항공기를 미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활주로 내 배수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정비를 깔끔이 하고 습지를 잘 정리한다면 물닭과 항공기 충돌은 자연스럽게 방지될 것이다. 또한 활주로 내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나 너구리 등 오리 같은 새들을 먹이로 하는 포유류를 적절히 통제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달 말쯤에는 대부분의 겨울철새들이 그동안 머물렀던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로 떠날 것이다. 일찍 출발한 두루미를 비롯한 기러기들은 벌써 시베리아에 도착하여 둥지를 틀었다고 한다.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물닭들도 며칠 내로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다. BAT(Bird Alert Team, 조류퇴치반) 요원들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기지 내에 발붙이지 못하고 해미천에서 월동을 하던 물닭들도 힘찬 날개를 펼치고 번식을 위한 이동을 시작할 것이다. 부디 장거리 여행을 잘 마치고 번식을 하여 올 겨울에도 조카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단, 비행장에는 들어오지 말고 뭇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는 해미천의 잔잔한 물가에서 생활하길 바란다. 그 때에 너희들을 만나면 ‘물오골계’라고 한번 불러 줄게. 어린 조카가 지어낸 너희들의 새로운 이름을 조용히 불러 줄게.

오늘 조카들과 함께한 해미천에서의 탐조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았다. 조카들이 탐조일지에 적어 놓은 작은 메모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이모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마술사이며 조류학자이시다. 오늘 수많은 새들을 해미천에 집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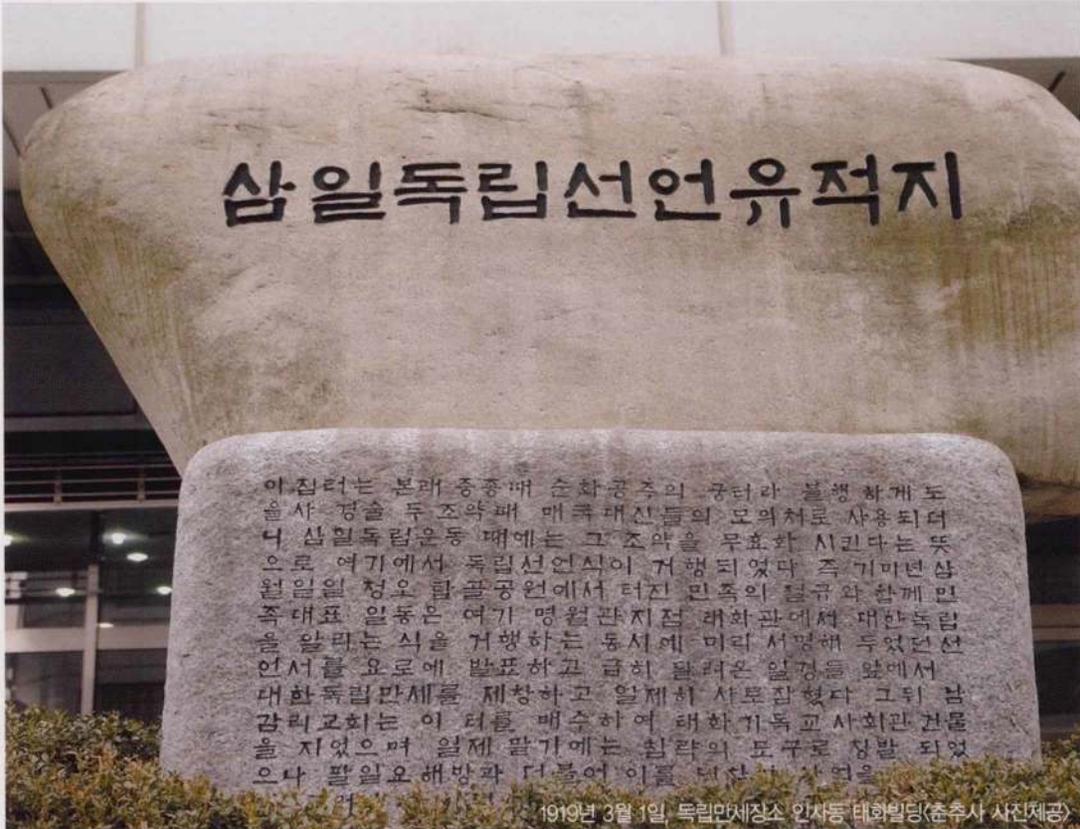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독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운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헌정이다.

눈 속에 피는 매화같은 다인

- 3·1 독립운동가 백용성(白龍城) 조사(祖師) -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1전투비행단



매화는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기며 맑고 굳은 상징인 것은 눈으로 덮인 대지, 초목이 자라지 못할 법한 곳에서 자라며, 추위가 매서울수록 맑은 향기를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화는 사군자(四君子) 중 으뜸이다.

梅花(매화)

一枝春色滿堂新 (일지춘색만당신)
 點點清香醉世人 (점점청향취세인)
 不染塵煙水骨瘦 (불염진연빙골수)
 能堪霜雪鐵心眞 (능감설상철심진)

엄동철한의 매화나무 가지 푸른색은 봄이 가득하고
 꽃망울에서 나는 맑은 향기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차디 찬 추위에도 티끌만큼도 물들지 않는 얼음 뼈 같은 가지는
 거리와 눈을 능히 견디는 철심이구나.

백용성 조사(1864년 5월 8일~1940년 2월 24일)

조선말·일제강점기의 승려·독립운동가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며,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탄생하였다. 16세 되던 해에 해인사로 출가하여 화월화상(華月和尚)을 은사로, 상허혜조율사(相虛慧造律師)를 수계사(授戒師)로 삼아 승려가 되었다.

1910년 8월 29일, 지리산 칠불암 동국제일선원(東國第一禪院) 종주(宗主)로 있을 때 한일합방 경술치욕을 당하자 이제까지의 수행과 참선을 중심으로 한 삶에서 사바세계의 현실로 눈을 돌렸다. 1911년 상경하여 서울 종로 봉익동1번지에 대각교(大覺敎)를 세웠으며, 1912년부터 약 6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순방하면서 조선왕조시대의 3정승, 6판서, 8도감사(八道監司), 360고를 수령방백(守令方伯)을 지낸 이들이나 그 아들 만나 독립운동에 앞장서거나 막후의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간청하고 권유를 하였지만 시대사조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핑계로 불응하였다. 그러나 오직 참운봉 현감 청해 임상학(林相鶴) 공의 아들 사은 임동수(林東壽) 거사만이 이에 동조하여 3·1 독립운동의 재정 후원자가 되었다.

1918년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인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초당에서 백용성 조사는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 대사와 함께 국제정세와 국내사정과 타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용성조사가 체(體)가 되고 한용운 대사는 용(用)이 되어 호국호법을 서원(誓願)하였다. 한용운 대사는 용성선사를 심중(心中)의 스승님으로 모시고 호국을 담당하는 대용(大用)이 되고 용성 조사께서는 호법을 담당하는 대체(大體)가 되어 천도교와 기독교 장로회와 기독교 감리회, 그리고 불교 지도자들이 호국의 손을 잡게 되는 기미년 3·1 독립운동정신의 씨앗이 되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막후의 기둥이 되다.

한용운 대사의 주선으로 기미년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제1번 서명에 천도교 대표 의암 손병희 교주, 제2번 서명에 기독교 장로회 대표 길선주 목사, 제3번 서명에 기독교 북감리파 대표 이필주 목사, 제4번 서명에 불교계 대표로 백용성 조사가 서명하고 한용운 대사는 말미에 서명하였다. 그렇게 한용운 대사가 끝 부분에 서명을 하니 민족대표가 차례 차례로 서명해서 비로소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의 일이 되어 기미년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된 큰 원동력이 된 것이다.

경성 종로 인사동 태화관(泰和館)에서 1919년 기미년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이 모여 만해 한용운 대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태화관은 지금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요리 집으로 전신은 명월관(明月館)이다. 명월관 개전 초기에는 대한제국의 고관과 친일파들이 출입하였으며 후기에는 문인, 언론인들과 국외에서 잠입한 애국지사들의 밀담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1918년 명월관이 소실되자 그 분점격인 태화관이 만들어졌다.

기미년 3월 1일, 이때 백용성 조사는 태화관의 기생들에게 오늘 모인 조선민족대표가 조선총독부 경찰에게 체포·구금되어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어야 3천리 강산, 2천만 동포가 다함께 독립운동의 한 물결을 일으키지 않겠는가?라며, 민족대표들의 두루마기와 신발을 모두 감춰 놓아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시자 태현에게 한용운 대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민족대표가 모두 함께 부를 무렵쯤, 헌병



백용성 조사가 사용한 다상 - 죽림사 용성박물관에 보관



백용성 조사 탐심지, 죽림정사에 있는 태극기

대와 종로경찰서에 연락을 취하여 민족대표 29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로경찰서에 체포·구금되게끔 하였다. 결국, 박용성 조사의 의도대로 전국에 이 소식이 알려져,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국내뿐 아니라 같은 해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5월 4일에는 중국의 청년 5·4 운동이 벌어졌고 월남에서는 독립각성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중동에서는 독립촉진운동이 이룩되었고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통치를 반대하는 반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 기미년 3·1 독립운동은 세계 인류에게 이와 같이 크나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급힐 줄 모르는 엄정한 기개

다음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조선총독부 경성지방법원의 재판 내용이다.

일본 검사 : 피고 백용성은 이후에도 조선독립운동을 하겠는가?

백용성 조사 :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다시 하겠다. 조선 사람이 조선독립을 하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일본 검사 :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 일본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조선독립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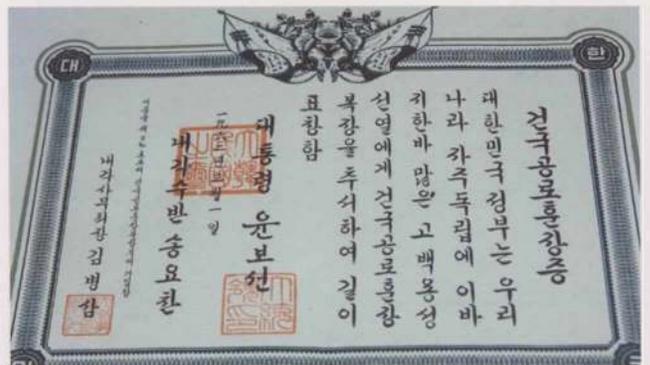
백용성 조사 : 물론이다. 조선독립선언서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조선의 독을 달라는 것이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리를 외면하는 일이요, 이 천리를 외면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일본은 하루 속히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일본 검사 : 무엇 때문에 조선독립운동의 민족대표로 참가했는가?

백용성 조사 : 조선이 독립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소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선독립운동에 민족대표로 참가하였고, 그런 당연한 소원인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선민족대표로서 조금도 굽힘없이 당당하게 조선독립을 주장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조선침략을 질타했음을 기미년 3·1 독립운동 비사(秘史)에서 엿볼 수 있다. 백용성 조사는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참수수행에 정진을 하였고, 그의 모습에 서대문 감옥의 일본인 형관들까지도 감복했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다른 민족대표와 같이 그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적용, 서울 서대문 감옥에서 3년간의 옥고를 치렀으며, 독립을 눈앞에 둔 1940년 음력 2월 24일에 세수 77세, 법랍(法臘) 61세로 입적(入寂)하셨다. 그의 업적은 후대에 평가를 받아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과 1990년 은관 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1962년에 받은 건국훈장 대통령장



백용성 조사의 상 앞에서 헌다(獻茶)하는 필자



대구에 있는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기상대 병사들의 웃음나누기

Hey, what's up?
Tonight, airman treats pizza!!

이병 이한영(668기)
제38전대 제8기상대 기상관측

일병 심재영(666기)
제38전대 제8기상대 기상통신

취재·원고장리 편집실 취재지원 제38전대 정훈공보실



군에서의 기상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모두가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에 기상대대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강수유무나 온도 등 기본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세기, 시정, 구름의 양 및 높이와 두께 등 항공작전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분석·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늘의 마음을 살핀다. 기본군사훈련과 특기교육을 마치고 제38전대 제8기상대에 자대배치를 받은 이한영 이병 역시 관측병으로서 임무를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란 이 일병의 한 마디에 모든 선임들은 단잠에서 깨어났다.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수화기를 보며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 심 일병은 수화기를 대신 건네받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대신 사과를 하면서 일이 마무리되었다.

미 공군부대와 함께 근무하는 여건상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은 필연적이다. 불과 몇 발자국 건너에 앉아있는 미군들이 왜이리도 멀게만 느껴지던지,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란 고민에 위축되어 있던 이 이병에게 미군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려준 사람도 바로 심 일병이었다.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진국이란 말을 사용한다. 숫기가 없어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심 일병을 곱창으로 오해했던 이 일병에게 이제 그는 자상한 선임이며 둘도 없는 동료이다. Crew 근무를 서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군 조직의 가장 말단에 있으면서도 천진난만한 웃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 이병과 그 선임들, <이등병이 쏜다!> 제6호점의 주인공은 바로 제38전대 8기상대 병사들이다. ㉸

천사표 심 일병님께

필승!!!

특기 교육을 마치고 동기들과 헤어져 혼자 자대 배치를 받던 날, 처음 보는 자대의 환경에 매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임들이 긴장한 저를 편하게 대해 주고,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준 덕에 자대에 적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심재영 일병님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 일병님의 첫 인상은 말도 많지 않고 무뎠어 보이어서 동기들이 말했던 굶창의 기질이 다분한(?) 선임으로 보여서 가까이 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병들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전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상대에서는 관측이라는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전화벨이 자주 울립니다. 마침 전화기는 제 옆에 있었고, 새벽에 전화가 울리자 저는 비몽사몽간에 수화기를 들어 전화에 대고 "여보세요?" 라고 말해 선임병 모두를 잠에서 깨우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심 일병님이 전화를 받아서는 신병이라 실수를 했다면서 잘 교육시키겠다고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큰 실수였음에도 신병인지라 별 구중없이 지나간 사건이었지만, 자대에 와서 잘해보겠다는 다짐을 했던 저로서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상을 뒤엎고 평소 무뎠어 보이던 심 일병님이 저를 찾아와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심 일병님은 자신도 이등병 시절 저질렀던 전화 실수 이야기 먼저 꺼내며 괜찮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며 절 위로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더 잘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일을 배우는 시기에 지적을 받아 풀이 죽어 있을 때마다 위로해주시고, 미군과 함께 근무할 때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도 옆에 다가와서는 신병이라 일을 배우는 중이니 이해해 달라고 미군에게 말하며 저에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영어까지 친절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 심 일병님의 배려가 신병이었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고마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일에 적응하다보니 어느새 일병 진급이 이번 달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힘들다는 이등병 시절, 저는 심 일병님 후임으로 들어와 남보다 마음 편하게 자대생활에 적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 일병님,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



'이등병이 쓴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 드리고 그 사연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인터넷)

Vendetta가 Avenge에게 “누구나, 넌?”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지음
blog.naver.com/midomiho

복수는 차게 식혀 먹어야 가장 맛있는 요리!

명작영화 〈쇼생크 탈출 The Shawshank Redemption〉의 원작은 스티븐 킹이 쓴 중편 소설 〈Rita Hayworth and Shawshank Redemption〉입니다. 〈쇼생크 탈출〉에는 무척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오지요. 앤디(팀 로빈스)가 교도소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할 때 동료 죄수가 소설책 〈몬테 크리스토 백작 The Count of Monte Cristo〉을 집어 들더니 지은이의 이름을 ‘Dumb Ass’라고 발음하는 장면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렉산더 뒤마의 성(Dumas)을 ‘바보 멧청이’라고 발음한 것이지요. 죄수의 무식함을 꼬집기 위한 설정이지요. 뒤마의 〈몬테 크리스토 백작〉을 비롯하여 복수를 다룬 영화가 유난히도 많은 이유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설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인물 구도 측면에서 선과 악의 주체

가 대립하며 뽑어내는 극적 긴장감에 관객이 크게 매료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대표적인 복수 영화인 〈킬 빌 Kill Bill〉에는 이런 명문장이 나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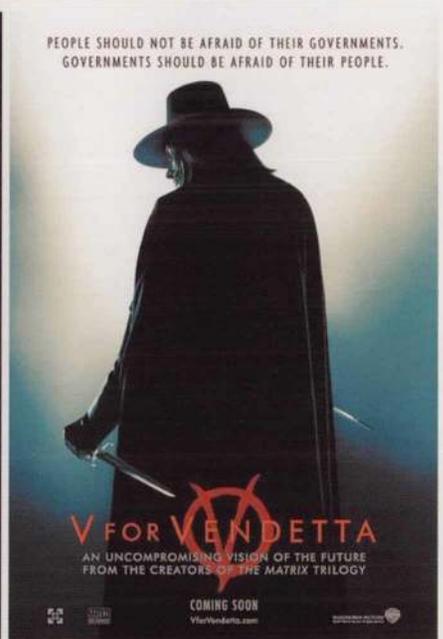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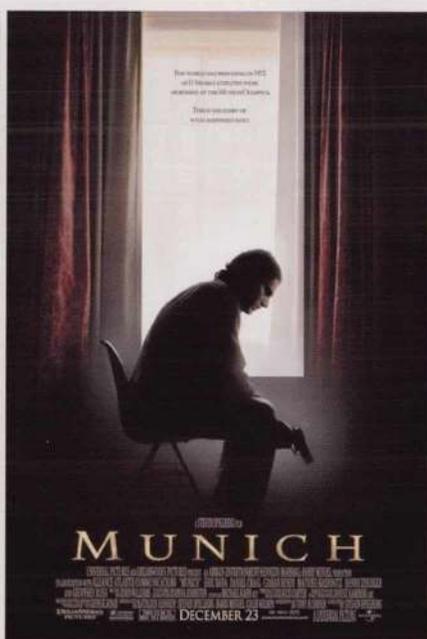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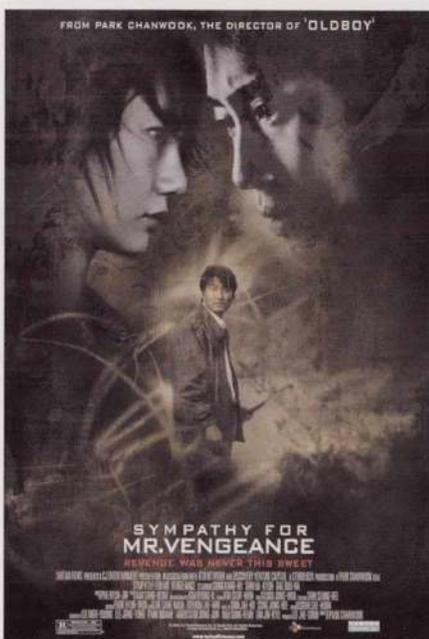
“복수는 차게 식혀 먹어야 가장 맛있는 요리와 같다.”

Revenge is a dish best served cold.

이 명문장의 원전은 한국영화 〈스캔들-남녀상열지사〉의 원작인 피에르 쇼데르로스 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Dangerous Liaisons〉입니다.

성서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복수의 어원

박찬욱 감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수 영화’의 대가이지요. 그가 만든 ‘복수 3부작’ 중 첫 편인 〈복수는 나의 것〉



을 영어로 직역하면 'Vengeance Is Mine' 이 될 텐데, 수출용 영어 타이틀은 'Sympathy For Mr. Vengeance' 입니다. <올드 보이Old boy>에 이은 복수 3부작 완결판답게 <친절한 금자씨>의 영어 제목도 'Sympathy For Lady Vengeance' 이더군요. 일본의 거장인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이 1979년에 만든 영화의 제목도 '복수는 나의 것' 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영어표현 'It is mine to avenge' 는 성서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의 복수 vendetta와 blood feud

영화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도 복수를 다룬 영화입니다. 제목이 그걸 매우 잘 드러내고 있고요. 3차대전 후 '철저히 통제된 세계'가 영화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V' 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의 목표는 압제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브(나탈리 포트만)라는 소녀와 합세하게 되는데, V는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에게 얽힌 과거와 진실을 깨닫게 되지요. V로 상징되는 Vendetta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피의 복수, 즉 blood feud에 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 같아요. Blood feud는 보복 폭력의 사이클cycle of retaliatory violence.을 뜻하는 데요, 가문이나 국가 간 명예회복과 복수의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역사적 유래로 보면 vendetta와 blood feud는 같은 뜻이지요. 영국의 장미전쟁Wars of the Roses,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이 잘 보여주듯이! 그러므로 vendetta의 의미를 사전 방식으로 풀면 'a situation in which one person or group tries for a long time to harm another person' 입니다.

원수 갚거나 앙갚음하는 자, 어벤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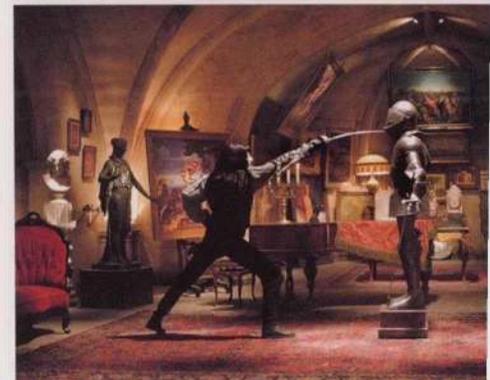
2011년에 개봉할 영화 가운데 복수가 소재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퍼스트 어벤저 : 캡틴 아메리카The First Avenger : Captain America>입니다. 온순한 군인 스티브 로저스가 '슈퍼솔저 특수 프로그램Special Super Soldier Program' 에 자원, Captain America라는 타이틀을 얻은 뒤 영웅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이지요. Avenger는 동사 avenge의 명사형인데요, '원수를 갚다, 앙갚음하다' 의 avenge는 'to get revenge for' 입니다. "햄릿은 아버지를 살해한 자에게 원수를 갚아야 했다. Hamlet had to avenge his father's murderer" 라는 예

문을 만들 수 있겠지요. Avenge 다음에는 행위action가 온다는 걸 유념해야 하겠고요. <퍼스트 어벤저 : 캡틴 아메리카>의 원작은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 의 만화입니다. 원작자는 만화 아티스트이자 작가인 잭 키비Jack Kirby이고요. 잭 키비는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를 비롯하여, 판타스틱 포The Fantastic Four, 엑스 맨The X-men, 헐크The Hulk 등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탄생시킨 작가입니다.

눈에는 눈의 복수와 an eye for an eye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뮌헨Munich>은 보복이 보복을 낳는 비극의 악순환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이지요.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학살한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의 대규모 보복은 massive retaliation이라고 하지요. "눈에는 눈 방식의 보복은 결코 평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메시지의 영화를 만든 감독답게 스티븐 스필버그는 대립하는 두 세력 중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고 중립을 지켰지요. '눈에는 눈의 복수' 는 an eye for an eye라고 합니다. 그 뜻을 영어로 풀면 the idea that if someone does something wrong, you should punish them by doing the same thing to them이

지요. 스피버그가 제시하는 메시지는 영어로 "An eye for an eye is no way to peace."입니다. ㉠





결코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림 김영은

◎ 일일명명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매킨토시, 아이팟 등으로 유명한 애플사(Apple社)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잡스(Steven Paul Jobs; 1955~)는 1955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1주일 만에 평범한 노동자 부부의 양자(養子)로 입양되었고 새로운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바르게 자랐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비싼 학비와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불과 한 학기 만에 대학을 자퇴해 그만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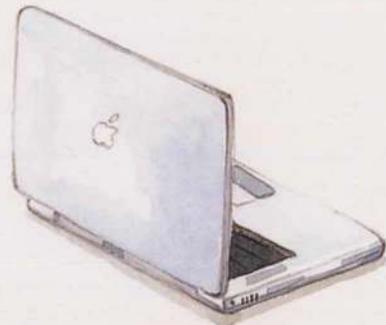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일하며 1976년에는 고교시절부터 친구로 지냈던 스티브 워즈니악과 애플 컴퓨터를 설립하여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함으로써 당시 컴퓨터 업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뿐, 스티브 잡스는 1985년 공동 경영자였던 존 스컬리와 경영진들에 의해 경영분장에 휘말리면서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대학을 자퇴했을 때처럼 커다란 시련에 부딪혔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플에서 나오자마자 '넥스트컴퓨터'를 창업하여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했고, 1986년에는 '픽사(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하여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를 통해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사가 넥스트컴퓨터를 인수하면서 다시 애플사로 돌아오게 되었고 1997년 CEO의 자리에 복귀하여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영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성공이란 중압감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이후 5년 동안 넥스트를 만들고 픽사를 인수했으며 지금 제 아내와 사랑에 빠져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마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쁜 일들 중 어디 한 것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론 인생이 당신의 뒤통수를 때리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저는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시작부터 무엇 하나 쉽지 않았던 인생에서 스티브 잡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에 대한 커다란 사랑,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게 됩니다.

성악계의 새로운 흐름

- 가창력≧외모, 성악가들의 두 마리 토끼 잡기 -



정홍래 | KBS FM 「송영훈의 가정음악, 방송작가, 서울대 음악학 석사

오페라 가운데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라는 작품이 있다. 프랑스의 극작가 '뒤마'가 쓴 소설을 각색한 이 작품은 한때 '춘희'라고도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춘희'보다는 '라 트라비아타'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민영웅 '베르디'가 오페라로 작곡한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여주인공이 겪는 비극적인 결말.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창녀 '비올레타'는 사랑하는 '제르몽'과 살아가려 하지만 제르몽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찾아와 아들을 단념해 달라고 부탁한다. 슬픈 비올레타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길임을 깨닫고 그와의 이별을 결심하고, 제르몽은 비올레타가 다른 사람에게 가려는 것으로 오해한다. 결국 모든 오해가 풀리고 제르몽이 비올레타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어 버렸다. 그녀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 비올레타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한 비련의 여주인공 '비올레타'... 그녀가 창백한 안색을 하고 슬픔에 잠겨 노래할 때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 어느 누가 비올레타의 비극적인 시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슬픈 이야기를 오페라 무대에 올리는 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비련의 여주인공 '비올레타' 역할을 맡았던 여가수의 몸집이 너무나 컸던 것이다. 결핵에 걸린 여주인공이라면 창백한 안색에 가냘픈 몸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소프라노는 그렇지 못했다. 심각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여주인공과 노래하는 소프라노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극중 인물과 실제 인물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오페라를 보는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없다는 것. 캐나다의 소프라노 '테레사 스트라타스'가 더욱 주목받았던 것도 그녀의 가냘픈 외모가 '비올레타' 배역에 너무나도 잘 맞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비올레타'의 매력을 한껏 살린 영화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영화에서도 극중 인물의 캐릭터를 실제 배우와 가장 잘 연결시키는 캐스팅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한다. 배역에 잘 맞는 배우의 연기에 사람들은 몰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페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숨어있다. 워낙에 '음악'이

중심이 되는 극이다 보니 오페라 홀 전체를 울릴 만한 풍부한 성량을 갖추는 것이 오페라 가수의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여가수에게만은 '다이어트'에 면죄부를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재작년 9월 세상을 떠난 세기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경우도 그렇다. 듣는 사람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할 정도로 시원하게 노래하는 그의 뛰어난 가창력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육중하다 못해 '드럼통' 같았던 그의 몸매는 못내 아쉬움을 자아냈다. 그가 세계적인 제1의 테너로 자리매김하게 했던 '도니제티'의 오페라 '연대의 아가씨'에서도 그랬다. 그는 다른 여느 테너는 하기 어려운 높은 음을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을 전율하게 했지만, 파바로티는 자신이 맡은 군인 역할에 맞지 않는 우람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파바로티가 조금 더 날렵한 몸매를 가졌더라면 극을 보는 관객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즘 21세기를 맞아 오페라 무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꽃보다 남자'라고, '다이어트'가 허용되었던 오페라 무대에도 바야흐로 '비주얼'이 대세인 시대가 왔다. 기존에는 가창력을 위해서라면 그 외에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면 요즘에는 '비주얼'도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시대가 왔다.

요즘 잘 나간다는 가수들을 살펴보자. 선남선녀의 결합이라고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로베르토 알라냐'와 '안젤라 게오르규' 부부는 성악계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배우 같은 외모에 가창력도 인정받고 있는 이들 부부는 무대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옛말을 실감케 한다. 또 요즘 가장 주목받는 커플 '롤란도 비아손'과 '안나 네트렙코' 역시 결코 뒤지지 않는 외모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커플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오페라를 무대에 올려 사람들에게 더욱 어필하고 있다.

'이미지'가 중요한 요즘의 흐름은 오페라 무대도 달라지게 한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선배들보다 할 일이 더욱 많아졌다.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외모를 가꾸는 데에도 결코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력'과 '외모'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하기에 더욱 바쁜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외모를 가꾸어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성공하기를... ●



스트라타스 주연의 라 트라비아타



알라냐 · 게오르규 부부



주목받는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내 마음속의 메트로놈

≡ 대위 장동하 | 공군본부 정훈과



이 시대의 참스승이자 큰 어른으로 존경받아 왔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지난 2월 16일, 87세를 일기로 선종(善終)¹⁾하셨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각막 기증 등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며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추기경님. 평생 동안 '감사'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야말로 각박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와 가르침을 갈망했던 국민들은 남녀노소,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추기경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고 있자니 몇 해 전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대학 3학년 겨울방학. 길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음악 선생님의 부음을 전해들은 것이다. 순간 내 기억은 열네 살의 중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음악을 좋아했던 나에게 중학교 첫 음악 시간은 설렘 그 자체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학교에 무척이나 예쁘고 고왔던 여자 음악 선생님이 계셨기에 이제 막 사춘기 소녀에게 그 가슴 설렘이란 음악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맞이한 음악 시간. 그러나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신 음악 선생님은 꿈에 그리던 여자 선생님이 아닌 백발이 성성한 남자 선생님. 그 순간의 실망감, 아니 참담함은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개그처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친구가 전해준 선생님의 부음 역시 그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그 날의 그 심정처럼 참담하고 슬픈 소식이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시작된 첫 음악 시간. 선생님께서 들고 들어오신 것은 교과서가 아닌 유난히도 거대한 체구에 마치 장난감처럼 보이는 메트로놈 한 개뿐이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소년들의 실망스럽고 참담한 눈빛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니 메트로놈을 교탁 위에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아들아. 잘 보그래이. 요 추를 높은 위치에 가져다 놔 빠리면 박자가 느려지제? 반대로 낮은 위치에 놔 빠리면 박자는 빨라진다 아이가. 맞제? 사람들의 삶이란 요 메트로놈이랑 똑같은 기라. 추가 너무 높으면 너무 게을러지고 추가 너무 낮게 있으면 너무 빨라지제.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적당한 위치에 추를 맞추고 적당한 박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다. 그게 바로 인생인기라. 알구나?”

우리는 모두 선생님께서 다그쳐 물으시기에 그냥 ‘예’라고 대답하고 말았지만 과연 당시 열네 살의 철부지 어린 소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던 까닭은 무엇일까?

한동안 잊고 있었던 선생님의 말씀이 그분의 부음과 함께 오버랩(overlap)²⁾되면서 이십대 청년이 된 내 마음속에서 십여 년 전 선생님께서 들고 오신 메트로놈이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모데라토(Moderato: 보통 빠르기)로

1) 임종할 때 성사(聖事)를 받아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것을 이르는 가톨릭 용어로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줄임말이다.

2) 영화 따위에서, 어떤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른 화면을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기법

내 마음속의 메트로놈

십 년도 더 지나 만난 친구
 선생님의 부음을 전한다
 내가 그분을 처음 뵈던 것은 어린 티,
 허물 벗고 싶던 열네 살 첫 음악 시간
 십육 분 음표처럼, 아니 삼십이 분 음표처럼
 경쾌한 여자 선생님이길 기대했건만
 교실 문 열고 들어선 분은 백발성성한
 남·자·선·생·님
 육중한 몸에 메트로놈 하나 들고
 실망스러운 눈빛의 소년 앞에 서셨다
 열네 살 철부지 무엇 알겠나마는
 선생님께선 해마다 그래 오셨다는 듯
 메트로놈 가지고 가르침 시작하셨다

'사람의 삶도 메트로놈 같아서
 각각의 때에 적당한 박(拍)을 새기고
 중을 울려 박자를 알린다
 추가 너무 높으면 게을러지고
 너무 낮아도 성급해진다
 그러니 느려지지도 빨라지지도 않도록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박자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는 나이인데 나의 게으름으로 또는 성급함으로 렌토(Lento: 느리고 무겁게)의 삶이나 프레스토(Presto: 빠르고 성급하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순간 삶의 속도를 잃는 것만 같을 때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생님께서 주신 삶의 메트로놈을 다시 한 번 꺼내어 보곤 한다.

그땐 그 말씀 뭔지 몰랐다

돌아가신 선생님 소식 듣고서야 나는
 Moderato, Moderato 할 나이에
 게으름이나 성급함으로
 Lento의 삶을 살거나
 Presto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았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던 메트로놈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 필자의 줄시 「내 마음속의 메트로놈」 全文 -

이처럼 훌륭한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진하고 오랜 향기로 남는 법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철학과 신념으로 살다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특별한 비유로 어린 소년들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나의 은사님. 두 분의 명복을 빌며 나의 줄시(卒詩) 「내 마음속의 메트로놈」으로 마칠까 한다. ㉞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No Day But Today!

전 세계 젊은 관객들의 No.1 뮤지컬 <렌트>

1996년 1월 26일, 오프브로드웨이 150석 작은 공연장에서 처음 관객을 맞은 뮤지컬 <렌트>는 공연의 뛰어난 완성도에 힘입어 불과 3개월 만에 브로드웨이 중심가의 극장으로 옮겨 공연됐다. 그리고 2008년 9월 7일을 마지막으로 뮤지컬 <렌트>는 지난 12년간 브로드웨이에서 약 3천15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한 셈이다.

<렌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으로는 처음 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에이즈를 작품의 주요 소재를 다뤘다. 또 현대 젊음의 상징인 락, R&B, 탱고, 발라드, 가스펠 등의 다양한 음악장르를 파격적으로 배치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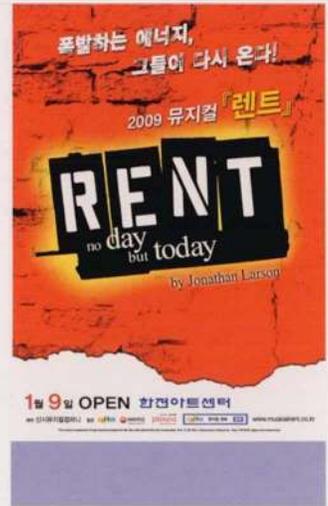
더욱이 <렌트>의 극본, 작곡을 맡고 작품의 첫 구상을 시작했던 조나단 라슨이 자신의 진짜 사는 이야기를 공연 속에 그려낸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 뮤지컬을 위해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지만, <렌트>가 공연되기 하루 전날 대동맥혈전으로 36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No Day But Today! 젊은 당신을 위해 브로드웨이가 한국에 왔다.

장소 : 서울 한전아트센터(양재역 1번 출구)

기간 : 3월 29일까지

가격 : R석 6만 / S석 5만 / A석 4만

홈페이지 : <http://rent.iseensee.com>



얇아진 지갑에 사치가 되지 않을 연극 한 편, 연극 [re-born]리본

검탈하려는 남자와 반항하는 여자,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 하나. 사건의 용의자는 파티플래너인 김지연이다. 마약 밀수단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궁지에 몰리게 된 변호사 임태호가 돈이 필요하여 김지연을 찾아가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하게 된다. 두 사람은 함께 사건을 준비해 나간다.

연극 [re-born]리본은 이러한 이야기를 '코미디 법정 드라마'라는 장르로 풀어냈다. 긴장감 있는 스토리 전개로 지루할 틈이 없다. 그리고 극 중간 중간 가미된 웃음이 관객들에게 통쾌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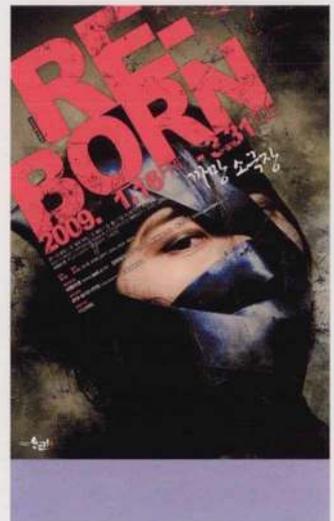
막이 내린 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실과 허구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더불어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진실된 모습인지를 질문하게 하는 연극 [re-born]리본. 우울한 당신을 위한 70분간의 유쾌한 여동이 마치 봄날의 설렘을 미리 안겨주는 듯하다.

장소 : 서울 까망소극장

기간 : 3월 31일까지

가격 : 전석 1만 5천원

문의 : 극단아리 070-8113-7179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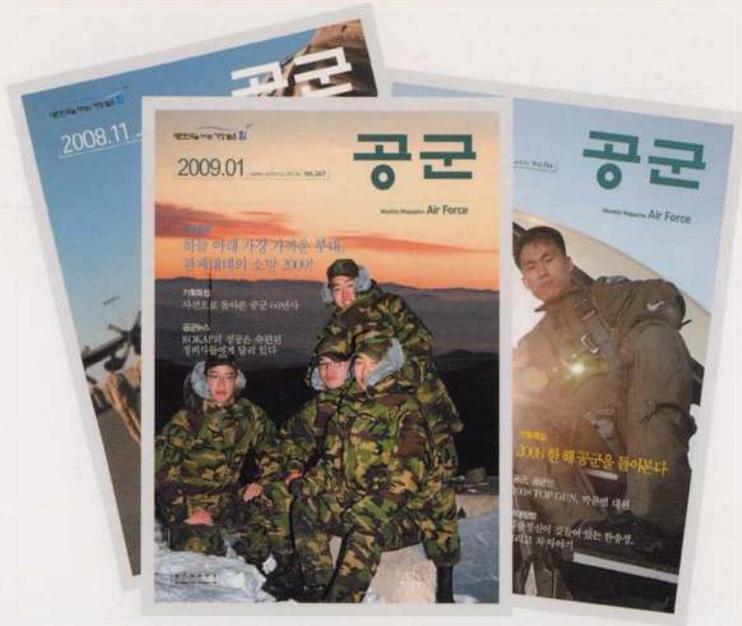
♣ 한국항공소년단은

기존 청소년단체 활동과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 꿈나무들에게 하늘과 우주로 향한 꿈을 심어 주고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장병 1인 1구좌(1만원)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0-996245(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
-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 명남빌딩 2층 02)953-7543/www.yfk.or.kr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공군」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이번 1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최근에 취임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삶을 다룬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는 혼혈아로 태어났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싹 틔운 정신이 현재의 그의 자리로 인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정식, 서울시 양천구 -

#2

<World-Wide Vision>의 '전사의 회복'을 읽으면서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는 군인의 참된 자세를 볼 수 있었고 부상을 당해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나라를 위해 공헌하려는 슬레이돈 하사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일이 폭발물 처리라는 위험한 일이지만 일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에 지금의 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 본받을 만한 군인정신을 가진 위인들에 대한 기획을 통해

군장병들의 군생활에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안명기, 경북 문경시 -

#3

오늘 도서관에 우연히 들러 <공군> 잡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묘한 메리트가 느껴지고 역시 우리 <공군>이 최고이고 세계속에 Core로 나서고 있는 모습에 어깨가 들썩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등병이 쓴다>는 인간미가 넘치는 기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왕 애독자가 되렵니다.

- 전동화, 전남 순천시 -

#4

늘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가득해 자투리 시간이 생길 때마다 읽었던 <공군>. 아이키우며 느꼈던 감정과 기억들을 되새겨주어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 같네요.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기사는 'Tops In Blue와 함께한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사진만 봐도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 채현호, 전남 여주시 -

#5

<생각하는 그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를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딸 아이의 책상 벽에 예쁘게 스크랩해 붙여 두었습니다. 새봄이 돌아옵니다. 노랑 개나리, 병아리 등 새로운 만물이 약동하는 이야기들을 감각 넘치는 <공군>에서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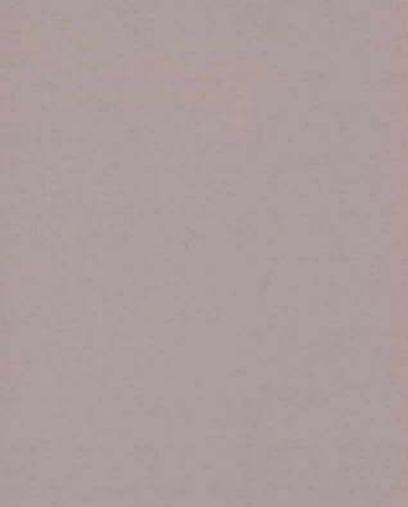
- 윤연우, 경북 영천시 -

#6

<공군뉴스>에 'ROKAF의 성공은 숙련된 정비사들에게 달려있다'란 제목의 글을 가장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2009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힘찬 전력, 밸런타인데이 혹은 화이트데이를 공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관해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공군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공군>을 보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표지의 착한 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 집니다.

- 박진경, 전남 여주시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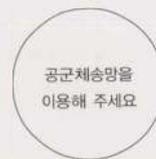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3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3월호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3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3월 20일까지

1.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약자로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이용하여 노후된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전환하고, 절약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원리로 운영되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약자는?
2. 전후방 조종석을 갖춘 2인승 중급 훈련기로 애국기 한남 운동을 통해 모금된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텍산(Texan)이라는 별명을 가진 항공기는?
3.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이 모여 만해 한용운 대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장소는?

※ 1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P&W(Pratt & Whitney)
2. 탑스 인 블루(Tops In Blue)
3. 창공의 여운

당첨자

서울시 양천구 최정식
경북 문경시 안명기
전남 순천시 전동화
경북 영천시 윤연우
전남 여주시 채현호
전남 여주시 박진경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295/042-552-6295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무 한 대

지금 내가 원하는 것.

2009 SPACE CHALLENGE

제/31/회/공/군/참/모/총/장/배/스/페/이/스/첼/린/지

본선대회 5.17(일) / 공군사관학교

주최/주관 : 대한민국공군

후원 : 공군발전협회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항공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소년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